

통권 제16호 | 2015년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Contents

권두언 꿈을 담은 '예수마을'	김종훈 목사_ 6
발간사 <예수마을> 나눔의 한마당	김근태 장로_ 7
총회보고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멀고먼 여정 해외한인장로회 활동소식	한기하 장로_ 8 _12
숨차게 달려온 길	조유경 사모_17
심은대로	송광수 장로_21
한국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하나님의 비전 여행	_24
다음 세대를 위하여	조태성 목사_26
To Serve the Church	유명근 전도사_32
선교 필리핀 단기선교	박재우 집사_36
필리핀 민다나오를 다녀와서	김영애 집사_41
필리핀 북춤 선교	조남이 집사_43
필리핀 미션을 다녀와서	레이첼한_44
볼리비아 Bolivia Testimony	신예찬_46
워크캠프 Work Camp를 다녀와서	김정현 집사_47
찬양대 순종, 인내, 최선, 기쁨, 감사	한 진 집사_50
사역소개 바나바 사역부는, 히스패닉 사역 무료영어교실 히스패닉 사역 맨하탄 전도	신동인 집사_53 강인영_56 류석환 집사_58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선물! 달고 오묘한 말씀 삶의 목표를 발견하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자훈련을 마치며	김세희 성도_60 김정순 집사_62 전용수 집사_63 한 진 집사_65 김현민 성도_67

예수마을 한마당 1박 2일의 목장예배를 드리고	신동인 집사_ 69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강철순 집사_ 72
축복	김주상 권사_ 78
공홀	현종렬 집사_ 81
아팠던 이야기	이근만 집사_ 82
좋은교회 행복한 교회	이왕근 집사_ 85
예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다	정영선 집사_ 88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주상우 집사_ 91
나의 건강 지킴이 레서피	성태섭 장로_ 92
성경암송대회	배경례 권사_102
성경퀴즈대회	이윤미 권사_103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임호준 형제_106
중고등부 수련회 Summer Retreat	제니퍼리_108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를 하고 나서	김은희 집사_116
4여선교회장을 맡으며...	손지현 집사_117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수업을 마치고	강서윤_109
마더와이즈를 마치면서	마성애 집사_111
마더와이즈를 마치며	김정현 집사_112
Wisdom for Mothers	Maureen Park_114
책소개 신유은사	김은희 집사_ 76
오후 5시에 온 사람	도부용 집사_121
마을감사편지 1목장-김주상 권사, 2마을-강문구 집사	_124
4마을 10목장 강서윤, 5마을 12목장-장연희 집사	
6마을, 7마을 17목장, 10마을 27목장	
감사절 오행시	_131
화보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_132

꿈을 담는 ‘예수마을’



담임목사 김종훈

“예수 마을”을 발행하면서 우리의 꿈을 다시금 이 잡지에 담아 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유럽 노회를 방문하면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총회장님으로 여러 노회를 순방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든, 캐나다든, 중남미든, 유럽이든, 호주, 일본, 혹은 뉴질랜드든 주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함과 불리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로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은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의 중심부를 치유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총회와 총회 산하 노회들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중심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중심부를 변화시킨 세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미약한 주변인들이었습니다. 롯은 모압여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롯은 철저히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홀로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에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워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거대한 미국, 그리고 특히 뉴욕 땅에서 주변인으로 살아 가지만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뉴욕예일장로교회란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비록 주변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예수마을”에 실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마을> 나눔의 한마당



김근태 장로

할렐루야! 예수마을 16호를 발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나의 신앙고백이 글을 통해서 읽혀진다는 것은 나 자신 뿐 아니라 읽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마을 16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비전들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김종훈 목사님께서 올해 해외한인장로회 40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것과 지금까지 사역하신 것에 대해 글과 사진으로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선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마을>은 성도님들의 나눔의 한마당입니다. 나의 작은 신앙의 체험기가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번 예수마을이 '오 해피데이'와 맞물려서 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분들이 아무쪼록 이 섬김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체험하시고 행복한 예수마을의 일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출판사역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고 먼 여정



한기하 장로

출판부로부터 담임 목사님 총회장 당선에 대한 원고를 부탁받아서 제가 총회 총대로 섬기며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당선되시기까지와 총회(KPCA)를 소개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노회, 총회”하면 정치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감리교회를 오래 섬기다 예일 장로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를 잘 알지 못했고 심지어 교단이 통합 측인지 합동 측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내 생일마저도 9월 6일인지 6월 9일인지 가끔은 혼동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장로로 임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 섬기기도 부족한데 노회와 총회도 섬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로 임직 받는 것은 한 교회를 섬기는 일 뿐만 아니라 상회인 노회와 총회도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회에서 부회계,

회계, 장로 부노회장 등 임원으로 섬기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부족한 사람을 총회로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지원해 주어 부회계와 회계로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바른 방향으로 평화롭게 나아가야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예수 제일’의 목회 철학으로 성실하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해 오시고 또한 어디에서나 좋은 소문이 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예일 교회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1년도 5월, 제 36회 총회에 부회계로 임원이 되어 회의하는 중에 총회장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담임목사님도 총회장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모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선거의 중요성과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보는 하루아침에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총회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장을 안 하

졌다면 목사님도 주위의 권고로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은 몇 분으로부터 교협 출마 권유를 받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교회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의논한 결과 교협 부회장에 출마하시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교협선거에 나가셔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욕 교회협의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뉴욕교협 회장으로 어려운 교회협의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은 이 교협 일은 목사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 뉴욕교협을 섬기게 하신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협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2년 동안 뉴욕 교협을 통한 교계 연

합사업의 경험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당회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뉴욕 노회 노회장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총회 여러 부서와 두 차례의 총회 회의록 서기 그리고 총회 서기로 성실하게 총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해외한인장로회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또 세계선교 사업에도 많이 힘을 써오신 분이기에 복음적이며 선교적인 우리 총회 수장으로 모든 것을 잘 갖추신 분이 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참신성과 목회 업적을 보고 지원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 39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선거를 치루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부총회장에 당선되고 보니 1년 후 총회 개최할 장소가 문제가 되었





습니다. 뉴욕의 호텔을 알아보니 너무 가격이 너무 높아 멕시코 칸쿤을 섭외하게 되었고 목사님, 사모님, 사무총장과 제가 답사를 하고 너무 시설 좋은 세계적인 휴양지에 좋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 년 동안 홍보 하며 준비하는 중에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이고 보니 목사님 사모님들과 장로 사모님들이 휴가 겸 함께 참석하여 40회 총회 중 최고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40회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드디어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40회 총회 주제를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일교회 성도님들 50명이 자비량하셔서 기쁨으로 섬기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은 진분홍색 나비넥타이에 검정색 정장을 하고 여성은 개량한복을 차려입고 ‘거룩한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총대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총회 목사님들이 50명의 대원이 시간을 내고 자비로 총회에 참석하여 섬기며 담임 목사님을 축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감탄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21개 노회와 500여 교회의 9만 여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기 한이 없는 저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4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성껏 섬겨주신 우리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주신 사명이 곧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40회기 한 해 동안 총회장님의 말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담임목사님의 해외한인장로회 활동소식



대한예수교장로회 100회 총회에서 말씀

1. 대한예수교장로회 100회 총회

지난 9월14일부터 17일까지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100회 총회 내빈으로 참가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전국 65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모여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교계와 민족의 현실을 붙들고 장자교단 답게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화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은 총회적으로 100회를 맞을 뿐 아니라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채영남 목사님이 100회 총회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화해를 위해 한 회기를 최선을 다해

섬기시려는 의지를 시종일관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60여명의 전 세계에서 오신 내빈 중 유일하게 저에게 회의 중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저의 스피치 중 회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부산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님은 해외 총회장 인사 중 지금까지 박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고 너무 감동적인 스피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설교 후 장신대 교수들과 함께

지난 수요일은 장로회 신학대학 채플을 위해 다시 서울을 다녀 왔습니다. 한 경직 목사 기념 예배당에 약 2000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경건처장으로 계시는 김경진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느라 설교 중 핸드폰을 보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

습니다." 설교중 핸드폰을 안보고 저의 설교에 집중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음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호주노회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 공항에서 대기중 목양칼럼을 씁니다.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다스리며 남은 순방의 길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2. 호주노회와 뉴질랜드 노회 순방



호주 노회 노회원들과 함께

1) 호주노회

호주노회는 19개 교회 중 멜번과 골드 코스트에 각 1개의 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1788년 영국이 흉악범 죄수를 풀어 놓으면서 영국계 백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1973년까지 백호주의를 펼치면서 백인들만의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타인종들의 유입을 허용하고 한인들도 약 8만명 가량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힘든 일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열심히 힘쓰고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시드니 우리교회에서 1부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는 시드니 샘물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크지는 않지만 모두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에 생기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2.5에이커 땅에 성전 건축을 막 끝낸 새벽종소리 명성교회를 둘러보고 기도해드렸으며, 월요일 오후에는 총회에서 대접하는 “노회원 초청 총회장님과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총회 이후의 총회의 모습과 앞으로의 총회의 계획 등을 설명하며 호주 노회를 격려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떨어져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총회가 총회장 부부의 방문으로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해외 노회 방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환대해주신 호주노회원들의 사랑을 입고 뉴질랜드 노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수요 연합집회 후 뉴질랜드 노회원들과 함께

2) 뉴질랜드 노회

뉴질랜드는 온 나라가 푸른 잔디로 뒤덮이고 소와 양떼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질

랜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죄수들을 이주시킨 나라이지만 뉴질랜드에는 정치범들이 왔다고 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 비해 조상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온 백인들은 마오리 원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몰아내지 않고 협약을 맺고 살아서 많은 마오리 족과 또는 혼혈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노회에는 11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모두가 수도인 오클랜드에 모여 있었습니다. 교민이 2만명 정도 살고 있지만 모두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 교육에 힘쓰는 모습이 호주와 흡사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뉴질랜드 노회 연합 수요 예배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일 부흥회 식으로 드렸습니다. 모두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노회원 부부와 자녀들까지 42명이 모여 총회에서 대접하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일년에 한 번 하는 잔치와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3) 두 노회의 공통점

노회원들끼리 매우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총회장 부부의 방문을 통해서 총회에 대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5월 총회 때 예일교회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두 노회의 정성어린 사랑의 섬김을 뒤로하고 일본 노회를 향하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동경교회 일어권예배

3. 일본 노회 순방

일본은 장로교 선교사가 한국보다 약 20년 더 빨리 들어간 나라이지만 현재 개신교 비율은 전체 인구의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교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시스템이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그 시스템을 버리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동 국물과 면발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도 부모가 세워 놓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서울우유보다

더 큰 우유 생산업체에서 우유에 좋지 않은 것을 첨가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정부는 과감히 그 우유 생산업체를 폐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실례라는 시스템이 몸에 배여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다가 갈 때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익숙한 시스템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선교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철처럼 두꺼운 시스템을 뚫고 복음을 사도행전처럼 원색적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해외한인장로회 일본 노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유학 와서 캠퍼스에서 예수를 만나 결신하고 양육 받아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아 자신들의 학위도, 좋은 직장도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동경을 중심으로 고속철인 신칸센이 지나는 큰 도시에 선교 거점을 세우고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열도 전역에 10개 시찰에 47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도와 교회 개척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한국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지만 시간을 달리하여 드리는 저들의 예배는 우리 한국 장로교 예배 형태와 꼭 같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찬송과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저들의 언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매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 선교가 막연하게 느껴지던 것이 이번에 일본 노회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보고 오게 된 것이 참 기뻐했습니다.

4. 유럽노회 방문

금년은 유럽노회가 동유럽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에서 열렸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 유럽노회는 다른 노회와 달리 한 나라나 혹은 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모임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 속한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독일 등지에서 오신 노회원들이 일년에 한 차례씩 모여 노회를 합니다.

유럽 노회의 현실은 유럽의 상황처럼 어렵습니다.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복음주의의 쇠퇴와 무슬림의 약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 이성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가지 못하고 점차 노령화와 함께 세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

데 유럽의 목회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만 유럽노회로 모일 때 마다 주님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새 힘을 얻고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제가 부흥회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서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대한 세력의 중심부가 아닌 약한 힘을 가진 주변인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변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성경의 진리에서 오늘도 희망을 찾곤 했습니다.

알바니아는 1992년 민주화가 되기까지 50년간 공산주의 아래에 있었습니

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 정도의 가난한 나라입니다.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제조업의 2차 산업은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조금씩 관광 사업 등의 3차 산업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회교가 60%인 나라이지만 지난 50년간의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순박하여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렵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희망에서 힘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차게 달려온 길



조유경 사모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마태복음 25:21)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 북마크이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받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임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다. 사실 해외한인장로회 부총회장 출마 추천은 받아 놓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선거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었다. 그래서 오래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상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받고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선거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송구영신 예배 후에 성도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다 끝난 후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께 이 확신을 알렸다. “목사님, 이번에 부총회장 되시겠습니까.”

사실, 교협회장을 하던 그 일 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부활절이 지나고 금강산에서 교협주관 부활절 연합 예배 평가회를 할 때에 기자 한 분이 내게 다

가와 말을 건넸다.

“김 목사님이 교협 부회장 선거에 나오신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황당했었다. 난색을 표하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 교회 목양하기도 바쁜데 무슨 교협 일을.....”

“어르신들이 민다고 하던데.....”

기자는 말꼬리를 흐리며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교협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우리 관심 없어요.” 한참 시끄러웠던 교협이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6개월 후, 경찰이 드나드는 교협 회의장에서 결국 목사님은 부회장이 되셨고 다음 해에 교협 회장이 되셨다. 교협회장을 하던 그 일 년은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기억이 있다. 신년하례부터 창조과학탐사여행, 할렐루야 대성회를 끝내기까지 책임이 막중했다. 각기 다른 교단과 목회자들, 부족한 예산, 여러 종류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있던 갈등관계로 인해 늘 복잡한 양산을 띠고 있는 교협은 그야말로 기도 덩어리 집합체였었다. 목사님을 아끼던 주위 분들이 왜 백로가 흙탕물에 뛰어들고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일 년을 잘 마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다. 그리고 왜 교협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어야 했는지를 다 마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며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셨다. 평온해진 교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었다. 교협에 일이 많고 복잡했을 때 때때로 나는 “Who pushed me?” 하며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풀장을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수영을 해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올라오자마자 그 주인이 칭찬하려 할 때 뒤돌아서 ‘누가 날 밀었어?’ 하며 소리 질렀다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옆에서 정신없이 일에 분주한 목사님을 보면서 그 말을 되내이곤 했었다.

목사님은 39회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이 되셨고 40회 총회는 캔쿤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배실이 좁아서 그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도 없고 식사하기도 장소가 협소한 까닭에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어떻게 총회를 치를 것인가 내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호텔관계를 잘 아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담당해 줄 사람이 안보여 마음에 걱정만 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여태까지 효도관광을 늘 준비하던 네 경험은 어디다 두었냐고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득거리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컨벤션 호텔 그룹메니저와 연락하며 예산을 계산하니 턱없이 너무 비싸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듯 해보였다. 해법이 안나와 답답해하던 중에 타 교단이 캔쿤에서 총회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반가운 해답이 나왔다.

당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모두 반응이 긍정적이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반기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게다가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겠다고 모두들 협조를 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렸다.

캔쿤에서 총회를 열게 되니 너무나 일이 많이 떨어졌다. 제일 힘든 픽업문제와 음식이 해결되어 한결 일이 가벼워진 셈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총 기획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총회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셨다. 행정팀으로 선출된 김동환 집사님이 전체 그림을 훤히 꿰뚫고 이해를 잘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혹시나 하며 “집사님, 혹시 삼성에서 일할 때 기획팀에 계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집사님 말씀이 기획팀에 계셔서 컨퍼런스를 많이 치루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에서는 “할렐루야! 딱 이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김 집사님이셨음을 알고 또 한 번 내심 흥분하면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 총회를 개최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우리가 가기

전날인 주일에 호텔 에어컨디션이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왔다. 호텔 측에서는 월요일에는 다 고쳐진다고 했지만 파이프가 터져 수리한 부분 말고 다른 또 하나의 파이프가 다음 날 또 터지는 바람에 호텔의 반 이상이 에어컨이 가동이 되지를 앓았다. 총회 장소인 컨벤션 홀이 너무 더워서 회의를 할 수 없게 되어 호텔 측에서도 당황하며 급하게 옆 호텔 컨벤션 홀을 빌려 마련해 주고 오가는 차량편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바로 옆이라 걸어가기도 하며 더 넓고 더 좋은 장소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한인장로회 특성상 전 세계에서 오는 목사님들이라 특별히 당신들이 서비스를 잘 하면 돈 안들이고 이 호텔





에 대한 좋은 선전이 세계 구석구석에 까지 퍼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호텔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몇 차례 준비하는 과정에 담당 매니저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부탁했었다. 하지만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고장이 발생하여 호텔 측에서도 신경을 쓰며 최선을 다하는 성의와 모습을 보였다. 우리에게도 잘 참아 주어서 고맙다고 특별히 전통 민속 쇼도 야외에서 마련해주고 음식도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어찌되었던 간에 총회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치러졌고 잠깐 동안 더워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5만 5천불의 보상을 해줘서 총회로 큰 금액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다.

총회를 다 치루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음을 깨닫게 된다. 에어컨이 안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리저리 애쓰고 힘든 시간을 잠시 보냈지만 더운 것은 잠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흘린 땀이 보상으로 돌아와 총회에 자금이 쌓이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40회 총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이셨음을 확실히 느낀다. 그동안 우리 두 사람은 얼마나 숨 가쁘게 달려왔는지 모른다. 최근 4년 동안 얼마나 다양하게 바쁘고 숨이 차게 넘어갔는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뒤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 외에 달리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감히 누가 감히 닫을 자가 있겠는가!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총회와 교회적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목사님을 통해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잘 쓰임 받는 충성된 일군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하)

방지일(큰아버님) 목사님
가신 일주년을 맞으며



‘심은 대로’는 방 목사님 생전 때부터 “방지일 목사 기념 사업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뉴욕에 오셔서 가족 친지들에게 주신 말씀 콩두득두(種豆得豆),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심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말씀.

이는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말씀이 기도 한데 이 땅에 계시던 103년 5개월 동안 참으로 잘 심으신 분입니다.

중국선교를 하시면서 중국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쌍십절인 10월 10일 0시 23분 10시간의 깊은 잠을 주무신 후 하나님의 때를 맞춰 부르신 것 같습니다.

최후 사역도 이 시대 우리의 기도 제 목인 통일을 원하는 집회에 가셔서 축복



송광수 장로

기도 하시고 사흘째 세 시간 후 원하시던 “남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고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국 선교 후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1957년부터 목사님들과 매주 함께 하시던 월요성경공부(현 겨자씨 성경공부)도 2014년 10월 6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저의 형님 송환규 목사님이 방목사님 인도하시던 성경공부에서 조카(방영희)를 소개받아 1973년 저에게 소개해 주셔서 일년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성경공부 열매중 하나이지요.

이 성경공부로 친구약 66권 강해가 책으로 출간되었고, 피의 복음, 눈물의 병, 성도의 생활, 나의 나뉘, 본 대로 들은 대로 등 방목사님 삶의 연수보다 많은 100여 권의 책이 성경공부, 설교, 집회 말씀 간증 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방목사님은 영등포교회 21년 시무하시고 원로로 은퇴하신 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강단에 서시고 오직 예수, 예수의 피를 강하고 담대하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전하시며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힘을 다하여 전하셨는데 육신의 연약한 부분의 고통과 장시간 여로는 복음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욘 23:10). ”

전파의 순종함에 묻혀버렸지요.

뉴욕 예일장로교회 오셨을 때 전하신 말씀 중 나와 우리는 제로이고 주님은 1(제일)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0.1이 되고 우리를 고집하고 세울수록 (0.01)(0.001)작아지고 힘이 없으나 우리 앞에 예수 제일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10)(100)(1000) 열배 백배 천배 강해지는걸! 말씀하셨습니다.

방목사님 삶에 말씀 뿐 아니라 기도생활도 중히 여기셨습니다. 1975년 초 영등포 교회 새벽기도 때 군대 입영한 청년들이 60여명 되는데 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외국에 나가있는 교우들 까지 위해 기도하시는걸 보았습니다.

뉴욕에 오셔서 저희 집에 들르실 때도 새벽 2시경 일어나셔서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하시며 이메일도 하시고 일일이 답장도 보내시는걸 보았습니다.

방목사님의 신앙은 1851년경 태어나신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양교(기독교)가 들어오자 자진하여 장관선교사님께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으신 후 20리 거리인 철산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수사상이 깊은 때라 문중에서 박해가 심해 교회 다녀오는 길목에 숨어있다 습격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며 행패 부리는 것을 보시며 당시

어린아이였던 부친과 할아버지가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 사는 문중에서 축출되어지고 결국 30여리 되는 연수동으로 추방까지 당하니 농사지를 땅이 없어 소작농이라도 하려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 고생하는 중 어느 산 아래 아직 개간하지 않은 돌짜이 가득한 불모지를 얻어 열심히 옥토로 만들어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주니 다른 농토보다 많이 소출됨을 방예수라는 그가 믿는 신이 복을 주셨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믿음 생활 중 어느 날 예수쟁이 집이라고 태워버리기 위해 불소슴으로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것을 나중에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방목사님의 삶은 저의 결혼 41년을 지나면서 볼 때 믿음과 순종의 아브라함 같은 분이며 위로삼아 아래로 삼대 신앙의 6대요 그 중심에 계시며 사촌동생이신 방지각 목사님은 “예수만 전하며 흠 없이 사신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욘 23:10).”

옴을 닦은 심은 대로 거두신 참 목사님으로 기억합니다.

‘밭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으리라’

한국교회여 예수의 피를 전하라

고 훈

평북 선천 들녘에
가을이 고개 숙일 때
당신은 103세를 향수하시고
하늘 본향으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나이만큼 책을 쓰시고 아낌없이
다 나눠주시고 가신 아버지여
선친도 당신도 평생 활채어 타시고도
세계를 향해 복음 쉬지 않으신 선교사여

오래 살려거든 막살라하신 말씀은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고
물 흐르는 강물처럼
주님의 뜻 따라 살리신
말씀인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피를 전하는
교회가 되라하심은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마지막 주고가신
피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녹슨 종으로 살지 않고
다 닳아진 종으로 살고 싶다 하신
당신의 평생 고백은

주님께 부름 받은 그날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신
착하고 충성된 목자의 심장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마지막 본 목자여
더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달려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셨으니

하늘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쉬라 하십니다.
청빈과 강직과 온유와 겸손의
거룩한 목자의 걸음은
우리에게 주고 가십시오.
우리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평북 선천 들녘에
가을이 고개 숙일 때
당신은 103세를 향수하시고
하늘 본향으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기독교공보에서 발췌)



한국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하나님의 비결 여행



나영규 목사님, 사모님

1. 미국에 오신 소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하나님 나도 미국 한번가게 해 주세요”라고 푸념 섞인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실제로 미국행 전자티켓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내가 말한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 뉴욕에 도착하고 느낀 점

예일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직접 마중 나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3. 여행은 어디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밀레니엄

극장에서 모세를 관람했습니다. 나이가가라 폭포를 구경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마음에 머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외쳤습니다.

4. 예일교회방문 소감은...

예일교회에서 드리는 주일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먼저는 담임목사님의 영성 넘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양육훈련 과정을 마치셨다는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 각오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양육과 섬김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감 넘치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기철 목사님

1. 미국 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모님: 작년 연말에 목사님이 좀 쉬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미국에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이틀 동안 잠을 설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큰 딸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 예일교회에서 주일예배 드리시고 느낀 점

저에게는 충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 임재의 예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배였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부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매주

일 드릴 수 있는지... 답은 양육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 여행은 어떠셨어요?

사모님: 개인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한 아이가 케나다로 이민을 가서 엽서 하나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나이아가라 사진이 있었어요.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보고 또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 앞으로 목회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전도가 목회의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예일교회를 체험하고 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육을 접목해서 진정한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조태성 목사
(양육/전도)

지난 2015년 1월 3일자 뉴욕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옷가게, 체육관, 술집으로 변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WJS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지난 10년간 문을 닫은 가톨릭 교회 건물은 전체 1천600 곳 가운데 3분의 2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4년간 7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국은 연평균 20여 곳의 성공회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지금까지 200곳 안팎의 교회에 신도의 걸음이 끊겼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515곳의 가톨릭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2010년에 5천 곳의 새로운 교회가 생겼음에도 신도 수는 오히려 3% 줄어 머지않아 유럽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종교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한때 교회였던 건물이 슈퍼마켓, 꽃가게, 서점, 체육관으로 변모했습니다. 1889년에 지어진 한 교회는 건물 내부를 온통 흰색으로 칠하고 여성 의류를 파는 패션 상점으로 개장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뿐만 아

니라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이 끊기고 유학생이 줄어들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이 늘어나면서 모든 한인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1. 신뢰와 전도

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벽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새벽에 주님께서 내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

열심히 전도를 하니 내 입에서 단 물이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행복했습니다.

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를 고백하니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니 내 입에서 단 물이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행복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었고 자녀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변하는 만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신뢰하여 ‘101 제자 훈련’이 일대일로 바뀌면서부터 양육자로 택하셨는데 사실 나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목사님께서는 나와 아내를 양육자로 택하셨습니다.

나는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일대일 제자훈련에 양육자가 되어 섬기세요!” 나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 드리기로 하고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2. 구원과 전도

‘내가 과연 전도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입으로만 전도한다고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전도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 출석을 잘 한다고 해도, 선교회나 목장 또는 사역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내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 하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는 교회의 행정과 재정, 사역부, 선교회, 목장, 2세의 교육과 신앙전달 등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

재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1장 8절의 말씀이 내게 와 닿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주변 지역과 뉴욕뿐 아니라 각 처에 퍼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전도라고 믿습니다.

전도사역부에서 매주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마트나 기타 지역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깨우려고 요일별 시간별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방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전도사역부에 문의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노방전도를 할 수 있으니,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솔선하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3. 훈련과 전도

우리 예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예일신학교’라고 부를 정도로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잘 받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고 어느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잘 섬깁니다. 때때로 섬김이 어려워 실족하기도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는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일대일 제자훈련과 201제자훈련(영성훈련)을 받지 않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교나 광고를 통해서 강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대예배 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예배 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잘 받은 우리는 굳게 닫힌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전도가 체질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참으로 은혜스럽다,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소문이 좋게 나서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친교는 더 없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훈련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하며 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월삭예배, 목장예배 등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하여는 인색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런 편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은 로마서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내가 먼저 말씀을 알고 제자훈련을 잘 받아서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은 그야말로 인종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문자, 사업가, 관광객, 유학생 등 세계의 중심도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어와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말씀과 같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고 어느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지금-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각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4. 나눔과 전도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중심된 이야기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가정경제 문제였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고 개스비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고 섬기는 선교회와 사역부와 목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나 주일만은 꼭 지켜야 한다' 권면하여 주일을 성수하기로 다짐 받고 헤어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도 어느 성도님이 차한잔 하자고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개인적인 일들까지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상담자의 입장에서 들어 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일 전에는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 벌어도 매달 500불이 모자라서 다음 주부터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1부예배를 드리라' 권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라고 위로와 권면의 말로 대신했습니다.

불신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단 경제문제 뿐일까요?

성도간의 상처로 인하여 잘 나오던 성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을 선교회와 목장과 사역부에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권면한다면 실족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당분간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먹은 성도들의 발을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것도 전도입니다.

5. 관계와 전도

전도는 ‘나를 파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관계전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부모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관계는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가슴 벅찬 이메일을 받았습시다.

‘만남...’

이메일을 받고 내가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내 아내와 ‘만나’ 연애하던 시절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처럼 가장 행복해 했던 그 시절! 교통사고로 죽었던 내 목숨을 살려 주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시고 여기까지 세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구가 만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시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함께 내가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성취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준 이 만남을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9절 말씀은 아주 특별하여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계습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주셔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신분의 변화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복음의 빛을 갠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To Serve the Church

John 13:1-20

유명근 전도사
(중고등부 담임)

In 1904 the heir to the Borden Dairy Estate, William Borden, graduated from Chicago High School a millionaire. His parents gave him a trip around the world. During that trip he became burdened for all the hurting people he saw in Asia, Europe and the Middle East. He made a decision to prepare for the mission field. When he made that decision he wrote in his Bible the words, “No Reserve.”

When William Borden arrived at Yale University the next year as a freshman his passion for Christ was already kindled. He was disappointed to find the school morally bankrupt and the teaching filled with empty philosophy. So during his first semester, he asked a friend to begin praying with him before breakfast. As a result of his leadership other prayer groups began to spring up. And by his senior year, 1,000 of the 1,300 students were meeting in prayer groups. Many of those young leaders came to the Lord through that movement.

Upon graduation he was offered high paying jobs. But he turned those offers down and continued to pursue God’s call on his life. While making those decisions he wrote two more words in his Bible, the words “No Retreat”.



When he completed his studies at Princeton Seminary he sailed to China to work with the Muslims. On the way he stopped in Egypt to study Arabic. But there in Egypt he was stricken with spinal meningitis and within a month at the age of 25 he died. What his friends and family found written in his Bible was a great source of comfort. Added to the words previously written, “No Reserve, No Retreat” were two more words, “No Regrets”. [2]

Wouldn’t it be a wonderful thing for you and me to arrive at the end of our earthly journey with those words written in our hearts,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William Borden is an example of a person who entered into his ministry and fulfilled God's plan for his life and could come to the end with "No Regrets".

What kind of thinking empowers you and me to serve with joy and not lose our passion for ministry? What do you need to know in order to take the place of a servant and follow the example Jesus gives us here?

I. Know who you are in God.

If we don't know who we are in God we will spend most of our energy doing things to define our identity. And tragically nothing we can do—no attainment, no honor, no accomplishment, no amount of human recognition can adequately define our identity.

Why? Because your identity is not found in what you do but in whom you are by the grace of God. That's why Paul spends so much time in the first half of Ephesians explaining to those believers who they are in Christ. That's why we read in that epistle statements like Eph 1:4-5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5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And Eph 2:7-10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We don't minister in order to find out who we are. We minister out of who we are. The first thing you and I need to have as a foundation for effective ministry is a revelation of who we are in God.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Out of who I am in God I serve you. So serve from where you are right now. Find the need and respond.

You can't serve in a capacity that is larger than you, but you can't forget that the transformation that is happening is pushing those limits. YOU HAVE TO BE GROWING IN FAITH TO MEET THAT CHALLENGE. It gets hard when you're not being filled with Jesus. So don't expect to keep serving at the same level consistently.

There in that upper room is Jesus assuming the most humbling task in that culture. He bows before the disciples and washes their feet. Why hadn't one of the disciples done that? We have a clue from Luke 22 because Luke tells us about an argument that arose amongst them as to who would be greatest in the kingdom. I suspect that none of them wanted to assume the position of washing the other's feet because that might have placed that one at the bottom of the pecking order.

None of the disciples were secure enough in who they were to embrace the job of a servant.

Jesus serves in the lowest position. It was the lowest level of servants washed guests' feet. It's a nasty job. Imagine the feet smell, the caked-on dirt, the filth of touching someone else's feet. But, this is the prime example of service.

- **Service is not meant to be easy, it's meant to refocus your attention on what Jesus has done for you.**

- **When faith and prayer is in proper action, that's when you begin to serve the right way.**

But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He was not insecure about his identity. Therefore, taking the lowly job was not threatening to that identity. When we can only define ourselves by what we do, we will be so busy trying to do something that will put us in a good light that we won't do much service. But when we are firmly centered on who we are in Christ, we can take the lowly position without worrying about being marked as insignificant.

Paul reminds the Christians at Corinth of something that we all need reminded of—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Turn to the person next to you and just remind that person of that truth—tell him or her,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So, Know who you are in God.

II. Know who you are serving. You are serving the church (the bride of Christ)

In verse 1 of our text John makes it very clear that Jesus knew that the time for him to lay down his life for you and me was very near. But in that verse John also makes this comment about Jesus and it is related to this issue of servanthood,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Love is one of the most amazing dynamic there is. In a way it defies explanation.

Love will cause a person to sacrifice personal comfort and gain for the well-being of another. Love caused William Borden to forsake a life of comfort and ease in pursuit of lost souls. Love motivated Jesus to pay the ultimate price for our redemption.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not a Hollywood distortion of love, not lust and selfish desire—but love. Love will win the lost sinner.

But how can I love stinky, selfish, rebellious people enough to serve them? By the way, that pretty well describes every one of us if we walk in the flesh.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That is the motive for service. But how do I get motivated that way? First, I need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shedding God's love ab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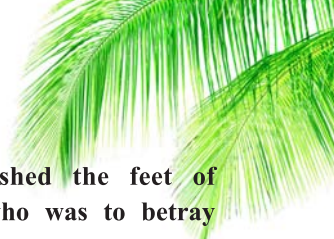
in my heart. Without God I cannot truly love other people.

But how can I nurture that love for people? I must go back to the word of God and remember how God looks at peopl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God sees something in people that is so precious to Him that He would send His Son to suffer and die for their salvation. I’m convinced that His love is so personal that were you the only person on the face of the earth Jesus would have paid that same price for you.

Jesus looked at his disciples and said in his heart, “You are why I will pay this price.”[19]

In Hebrews 12 we are told that Jesus endured the cross—there is no greater example of personal sacrifice and service than that—Jesus endured the cross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Here is the amazing thing. You are that joy. I am that joy. And so is that sinner that Jesus wants to reach through your testimony. Listen to the instruction given in Heb 12:1-3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ful men,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Jesus even washed the feet of Judas, the one who was to betray him.

- Serving doesn’t exclude the people we dislike or having a hard with
- You don’t set the standards of service. It’s Jesus who sets that standard.
 - * He loved until the end. And we are called to do the same.
 - = He didn’t quit and say I’ve had enough.
 - He knew Peter would betray him, his disciples would go into hiding upon his arrest, and it didn’t stop him.

Are you weary? Are you losing heart in your service to others? Consider him. Consider the joy that he was looking to as he endured the cross. Consider what that person means to him. I’m talking about attitudes nurtured in our hearts that will cause us to serve others. I’m talking about a way of thinking that naturally leads to effective ministry. May we all have the mind of Christ in these matters?

The call is to wash each other’s feet. Figuratively and literally. But it means to take the humility of Jesus. This is where faith leads us, strengthened by prayer.

YOU ARE THE CHURCH. I don’t like church because it doesn’t fit my need is the wrong thought. If you feel something is wrong or off, then fix it. Let that be your service.



2015
필리핀
단기선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필리핀 단기선교를 은혜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연초부터 선교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역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온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섬기며 선교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는 YG 12명 CCM 4명 유년부 1명 목사님을 포함한 장년이 18명 모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모아주신 선교물품은 2차에 걸쳐서 모두 45박스가 보내어졌으며 추가로



박재우 집사

필요한 물품을 선교사님을 통하여 현지에서 구입하여 선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옷, 약품, 생필품, 안경 등등 모든 물품들이 선교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기간 동안 한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모두 건강하게 선교사역도 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선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세심한 준비와 배려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쓰신 박인호 선교사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힘들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선교를 통해서도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QT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 힘 받고 저녁 저널 시간 때 사역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로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일이 모든 일정과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널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간추려 봅니다.

MISSION JOURNAL

(디고스 예일교회사역)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를 갈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왔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 사뭇 기대해 본다. 사실 가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일도 없지 않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해숙 권사와 같이 가기로 결정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작은 갈등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와보니 같이 온 것이 정말 잘했구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삶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편하고 좋았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더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때가 많이 있다. 다들 나름대로 어려운 때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온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대해 본다.

비행기 세 번 타고 도착한 다바오에서 짐을 푼 후에 곧바로 첫 사역지인 디고스 예일교회로 향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에 들어서서는 순간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긴 이동기간으로 인해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첫날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띠 교도소 사역

오늘은 유난히 아침 QT시간 말씀이 강하게 사로잡는다.

말씀대로 오늘 마띠교도소에는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로 기대해 본다.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막혀 있는 돌을 진짜 옮겨 놓으리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교도소의 모습은 3년 전과 달라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에 내려서 선교 팀이 줄서서 들어갈 때에 교도소문이 열리는 모습이 마치 돌이 옮겨지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도착 후 모여 기도할 때에 “눈을 뜨게 한 자가 죽은 자로 죽지 않게 살리지 못하였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통해하는 모습이 떠올랐다(요 11:37) 정말 그 말에 보란 듯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시길 목청을 높여 간절히 기도했다.

교도소 안뜰까지 들어가서 Salvation station을 진행할 때에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메시지 효과가 크게 느껴졌다. 복춤, 찬양, 팬티마임 말씀 선포 후 초청, 모두가 좋았다.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하러 갔는데 좁고 어둡고 더러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일까 안타까운 마음에 철창 사이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비록 이런 곳이 갇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은혜 받으면 이



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마음이 생겼다.

익핏고등학교 1

비가 온 후 사역지로 가는 길이 그동안 흠먼지로 쌓여있던 나무들이 청명한 하늘과 함께 비교적 푸르러 보였다. 바나나 농장 길을 따라 쪽 들어가니 동네 한 가운데 농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 곳은 3년 전에 우리가 왔었던 장소였고 그때의 감회가 떠올랐다. 그때처럼 오늘도 사역이 은혜롭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Salvation station이 시작되면서 돌아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것에 비해 모든 사역이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잘 진행된 것 같았다. 잘 훈련된 우리 선교 팀과 현지 지원팀이 연합하여 비교적 빨리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치과사역은 현지에서 지원 나온 치과버스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가자, 아직도 줄지어 남아있는 환자들을 한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주었다.

익핏고등학교 2

오늘은 익핏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선교 팀 중고등부 학생들과 배구대회를 가졌다. 익핏 농구장에 수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마치 온 동네잔치처럼 시끌벅적 하였다. 경기 중에 지르는 함성에 귀가 따갑다, 우리 학생들과 비교하여 이곳 학생들이 너무 왜소해 보였다. 그래도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재미있는 경기로 펼쳐졌다. 게임이 끝난 뒤에 헤어지면서 서로 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고 감명스러웠다.

우리는 단순히 배구시합을 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스포츠사역을 한 것 같았다.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선생님 지역주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 YG, CCM 너무 수고했고 자랑스러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필리핀 현지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헐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볼리비아 선교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Salvation station에서 간증할 간증문



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순간적으로 마음 속에 부담감이 생긴 것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부끄러운 생각 밖에 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빼고 쓰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질 않았다. 그러던 중에 생각난 말씀이 롬 1:16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를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달함으로 혹 그 누구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시절 몹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하고 사라진 후에 어머니는 혼자서 어린 5남매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때때로 굶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가거나 제대로 다닐 수 없었

습니다. 부끄럽지만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가난한 산동네에 세 들어 살던 집이 철거당하여 없어졌습니다.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에 어머니와 밤을 지새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엄마 말도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과 내 처지를 불평하기 시작했고 가정과 사회를 원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나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결혼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집에서는 제 별명이 헐크였습니다. 이 별명은 제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헐크라는 영화가 한창 재미있고 인기 있었지요. 그 영화 나오는 사람처럼 평소에는 멀쩡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화만 나면 이상한 괴물로 변했던 헐크,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며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며 무엇이든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는 순전히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나의 무능함과 경제적 불안감, 자존심 때문에 자책하며 갈등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부부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욕박 지르며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 찢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친구의 권유로 당시 베이사이드 집 근처 유대인 회당에 자리잡은 지금의 예일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는 아내가 왠지 보기 좋았고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내가 좋아서 주위사람들에게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쉬는 날을 주중에서 주일날로 바꾸어 주셨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였습니다. 예배도중에 갑

자기 가슴속이 뜨거워지며 감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 며칠 동안은 자나 깨나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기차를 타고 갈 때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뜨거움이 벅차 올랐습니다. 입에서는 잘 불러보지도 않았던 찬송가가 불러졌으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마음이 평안해졌으며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 보던 나뭇잎새도, 마시는 공기도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고 달라 보였습니다. 새로운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변해 갔고 우리 가정도 변했습니다. 암울하던 우리 집에 어둠이 걷히고 찬송과 기도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민다나오를 다녀와서

올 여름 단기 선교지로 정해진 필리핀 민다나오는 3년 전 나와 막내딸 글로리아에게는 첫 선교지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진 곳이어서 가고 오는 일정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힘은 들었으나 잊지 못할 선교 현장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선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지상명령 중의 최고라는 것이 분명하다. 한 번 다녀오고 나면 중독이 되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첫 선교 이후의 나의 선교활동은 매년 계속되는 선교 스케줄에 맞추어서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그리고 고산지대라 결정을 주춤하게 만들었던 볼리비아 까지도 서슴없이 갔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사람들은 선교를 다녀온다고 하면, 믿



김영애 집사

음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다녀오는 걸로 말들을 한다. 하지만 함께하는 선교팀원들을 둘러보면 그리 여유롭진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 같다.

선교지 스케줄이 후보에 나왔을 때, 내 머리 속은 잠깐 복잡해진다. 직장은? 식구들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언제 내가 능력이 되어 다녀 온 적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 힘주시는 말씀으로 바뀌며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교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박인호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으로 많은 계획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더욱이 필리핀에 아름답게 세워진 디고스 예일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심에 감사드리며 벅찬 감동이 일었다.

매일 매일 장소를 달리하며 사역하는 동안, 무더운 날씨였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이 기대 반, 호기심 반을 가진 눈빛으로 우리의 행사와 섬김을 받아들이는 순

나는 주님의 일을 조금 했을 뿐인데 주님은 삼십 배, 육십 배, 백배로 갚아주신다.



한 양들의 무리들. 찬양사역과 스킷을 통해, 안경사역, 미용사역, 선물사역을 통해 팀원들 각자 맡은 사역 중심으로 세분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대하듯이 현지인 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 저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 선교엔 북춤사역을 하게 되었다. 처음 시도해보는 북춤이라 배우는 과정 중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북춤을 드릴 수 있었다. 떠나기 전에 워낙 더운 지역이라 한복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춤을 춰야 하기에 팀원 모두 날씨 걱정을 했었다. 그리하여 저절로 날씨에 대한 기도가 나왔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 날씨도 3년 전에 비해 시원한 편이었고, 우리가 울동하며 북을 칠 때마다 바람도 간간히 불어 주었다.

이번 선교 기간에는 개인적인 드린 기

도의 응답도 이루어졌다. 선교 떠나기 전에 클로징 하기로 되어 있던 집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날짜가 계속 연기되었었다.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이사 갈 집도 마련하고 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을 안고 선교를 왔는데,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한 전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클로징 날짜가 드디어 잡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세 집을 서둘러 알아봐야 하는데 그 또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주셔서 3일 만에 모든 일들이 해결됨을 체험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조금 했을 뿐인데 주님은 삼십 배, 육십 배, 백배로 갚아주신다.

오늘도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따라 앞으로도 사도행전의 29 장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래본다.

할렐루야...!!!

북춤 선교



조남이 집사

선교 갈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그곳 주민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항상 관심 있게 관찰을 해 봤다. 어수선하고 언어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타악기 종류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가운데 우연히 우리 국악을 전공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선교를 위해 공연하는 선생님을 보고 우리에게도 지도를 요청했고 3월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역시 우리 가락이라는 것 때문인지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가 있었고 열정도 생겼다. 그리고 선교지로 목표를 위해 조금 고되게 연습하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팀원 모두가 믿음으로 하였고, 사역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더 은혜였다.

적지 않는 나이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서로 손을 잡아 주며 필리핀 선교비행기를 탔다. 더운 날씨였지만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더워서 단복을 입지 않고 간단하게 셔츠로 입고할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런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

었을 것 같은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도소 사역이었다. 분위기가 편치 않은 곳이었지만 우리 하나하나 소리에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창살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북소리로 들려주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감동되었다. 우리는 북을 두드리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기도로 요청했다. 이런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데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보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 큰 축복이었다.

선교는 고생의 길이 아니다. 내가 나를 훈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며 나의 신앙을 한 걸음 성숙시켜 나가는 단계(과정)인 것 같다.

선교가 무엇일까? 선교는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며 신앙생활의 훈련과 연습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주저 없이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동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필리핀 미션을 다녀와서

Rachel Hahn

My expectations for missions weren't very high. I supposed it was going to be like my other missions experiences: culture shock, but lax. Maybe I prayed a little harder when missions came around, but I wasn't expecting to learn much in a spiritual sense beyond QT and journal time. Of course, just as I grew comfortable in the thought of simply doing work in a foreign country, God spoke powerfully through this mission. It wasn't by visions or prophetic dreams that led me to see grace. It wasn't God's trumpet-

like voice that captured my attention. It was His soft whispers in the midst of humid days and His love in the smiles of those who I served. It was the undeserved accommodations our team received from our missionary that led me in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incredibly profound His grace is.

Serving in the glasses station was unexpectedly joyful. I had assumed that people would grumble about having hot pink glasses or complain about glasses that didn't perfectly match their prescriptions. But, every time someone would try on a pair of glasses, they would smile in such genuine joy for simply being able to see. The gift of sight is nothing to be taken lightly yet I am the one who grumbles for not having my contacts on time. It was deeply humbling to see people give me a joyfully confident thumbs-up when the world around them became

clear.

Praising with the Filipino praise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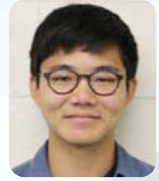
Through the laughter and smiles of the people who I served, this mission trip gave me a heaven-directed perspective of what true eternal joy might look like.

was a tremendous blessing. Even though I had no clue as to what the lyrics meant, joining in rhythm and melody to praise the same God was enough for me to know how great our God is and how much He deserves to be glorified. Our God transcends all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Knowing this, I noticed that Filipinos smile a lot and that it was easy to share in joy with them. This led me to understand that one day every nation will live harmoniously in the Lord's perfect joy and I should always be grateful and humbled for being a piece in God's beautiful plan.

As I served the people, God opened my eyes to see that I would spend an eternity praising Him with these brothers and sisters, my co-heirs. Each smile was a token of the future with the Almighty. Through the laughter and smiles of the people who I served, this mission trip gave me a heaven-directed perspective of what true eternal joy might look like. Joy that is shared definitively points to the God of joy. Sometimes I wondered how long it would take for me to get tired of smiling, but the Lord taught me that drawing from the cross is all I need. There is an everlasting, bottomless well of joy in serving if your heart is founded in the cross, which will never run dry. Day in and day out, it wasn't my strength or joy but rather those of the Infinite, All-providing, Limitless Father.



Bolivia Testimony



신예찬 학생

Bolivia was my first every international mission and to be honest I did not know what to expect and what I was going to experience. Bolivia, being my first mission, was a rememberable one. Preparing for missions was a struggle sometimes like trying to keep my fasting times, practicing pantomime, and preparing the activities. I tried to pray as much as I could and prepare my mind going to Bolivia. Bolivia being at a higher altitude and being an unknown place for me, I had worries of if I was ready physically and mentally. I thought that I would be one of the ones that would suffer and struggle while I was there but by God's grace and hand I was surprising one of the only ones who was perfectly fine. As I got to Bolivia I had a lot of worries of will I be able to survive, adjust to the different atmosphere, and even the thought will I be able to go back to America after missions. Although I had all these worries and fears, I felt like God was there next to me watching over me and picking me up. I felt blessed that I was able to go to Bolivia because it opened my eyes to things that I might have never thought or seen in person. I always wondered what could someone like me could do to

affect any person's life. I always wondered, seeing on TV all the advertisements and commercials of raising money for those in need, but I never believed that we can make a big impact but it turned out that we could and we did. Meeting all the people there and helping those in need and watching and playing with the kids there really influenced and encouraged me to do more for the glory of God. Missions was not a time of community service but to me I felt that it was more of a time to help guide and help those in need not though the works we did but show how everything was God's plans and miracles. Although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he only things I know I could do was to pray for those in need and encourage them towards Christ and his wonders. Although there were some who were sick and tired, I really want to motivate and encourage those who haven't gone or did any community service to do it because it really changes your mindset and can change you forever. There are some I know that were motivated to help those in need like by becoming a doctor, dentist, and missions members just by going to a mission and being changed.

Work Camp를 다녀와서



김정현 집사

3년 전 처음 Work Camp에 참여했을 때 막내 유이가 막 두 살이 지났습니다. 교인들은 애를 셋씩이나 남편에게 맡겨두고 사서 고생하러 가는 제가 무척이나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들은 ‘잘 다녀오라’고 ‘참 장한 일이다’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눈빛은 몹시 걱정스러워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파송 예배를 마치고 버스에 타기 전에 가장 많이들은 인사가 ‘애들은 어떡하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린 세 딸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 사십에 늦둥이를 낳고 품에 안았던 순간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를 키우고 대학 보낼 때 쯤 되면 내가 환갑이 되는구나... 그와 동시에 이런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네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쓰고 나면 팔다리에 힘 빠져 네 몸 건사하기도 벅찰 텐데 넌 언제 내 일을 할래?’ 전 그때 대책 없이 일 년에 적어도 한 두 주

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해마다 단기선교를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첫 해는 젖먹이 아기 젖은 떼고 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유이가 돌이 지나자 그 동안 눈인사만 하고 지내고 잘 말도 나눈 적이 없던 신영필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붙들더니 Work Camp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한 서원이고 남편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으니 얼마든지 환경을 핑계대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해보니 남편과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돌 지난 아이를 두고 어디를 가냐고 정신이 있냐고 나무래도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운을 띄운 저에게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



네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쓰고 나면
팔다리에 힘 빠져 네 몸
건사하기도 벅찰 텐데
넌 언제
내 일을 할래?’



야!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막상 Work Camp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독립 기념일 주간에 가기 때문에 폭폭 찌는 여름에 낫선 동네의 어느 교실 바닥에서 에어컨도 없이 야외에서 수영복 입고 찬물로 샤워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 집사님의 말씀에 살짝 겁먹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3년 동안 다닌 곳은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나오고 샤워시설도 잘 갖춘 최신식 학교들이었습니다.

첫날인 주일날 1부 예배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봉사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저녁때쯤 같이 일하게 될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5세 이상 성인 한 두명과 청소년들이 여섯 명씩 조를 이루어, 배당받은 집이나 단체로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나 싱글 맘들의 집을 페인트칠 해주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Handicap Ramp를 설치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날까지 잘못 알고 있어 당황했던 것은 이 팀원들이 같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타 교회에서 온 400~500명이 무작위로 섞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일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두려웠던 것이 제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3살 막내부터 70세 할머니까지 서로 맡은 직분을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삼년을 다니다 보니 끼리끼리 뭉쳐 다니고 노닥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열심히 안한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배려하다 보면 놀랍게도 뻥질거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열심히 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주인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Youth Group과 같이 했으면 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니까 이래



라 저래라 간섭했을 수도 있고, 누구네집 자식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제가 판단했을 지도 모릅니다. 늦은 오후 땀범벅에 여기저기 페인트를 묻혀 오면서도 활짝 웃는 아이들이 예쁘기만 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단체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늦은 저녁시간까지 우리교회 아이들끼리 따로 모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Work Camp가 주는 은혜도 컸지만 저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을 온전히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제 남편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필리핀 단기



늦은 오후,
땀범벅에 여기저기
페인트를 묻혀 오면서도
활짝 웃는 아이들이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전교인이 선교하는
그 날을 꿈꾸며...



선교를 신청했을 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 번 감탄하면서 우리 세 딸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선교에 동참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올해는 필리핀 선교 때문에 Work Camp를 가지 못하는데 다른 여자 집

사님들이 저 같이 애 줄줄이 딸린 사람도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내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전교인이 선교하는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순종, 인내, 최선, 기쁨, 감사!



한 진 집사

순종, 인내, 최선, 기쁨, 감사!

지난 여러 해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악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받은 다섯 가지의 단어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둬하던 사양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홀로 받으실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그리고 부르는 찬양대원들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의 은혜가 되어질 찬양을 위한 악보를 준비해야 하는 일, '순종'으로 받았고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이유로 힘들어질 때 '인내'로 참아냈으며, 맡겨주신 일 이왕이면 '최선'을 다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기쁨'을 느끼며 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 자신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마음의 감동으로 찬양곡을 선택하시는 지휘자 조성식 집사님의 마음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곡들을 전해 받는 것 또한 그 얼마나 마음 벅찬 일인지요. 곡들을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주일 밤에는 먼저 가사들을 읽어 봅니다. 다



양한 각기 다른 내용의 가사들을 읽어 봅니다. 가사들을 읽으며 제 마음 속에 잔잔히 밀려오는 감사, 사랑, 기쁨, 즐거움, 회개, 뉘우침, 용서, 깨달음, 밝음 등등 많은 감정들과 더불어 오선지에 그려진 음들을 따라 흥얼흥얼 부르며 가끔 피아노 건반까지 두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모른 채 찬양의 세계에 빠져드는 제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여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악장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림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악보들을 점검합니다. 깨끗해서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는 악보들도 있지만 손을 봐야 하는 악보들도 많습니다. 악보에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기한 것 또는 실수로 얼룩점이 나 선들이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악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만 선과 점들로 그리워져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불러 올려질 깨끗하고 신성한 찬양의



많은 악보들을 한 장 한 장 그렇게 고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때
나 또한 그 악보들과 더불어 나의 영육이 깨끗하여짐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이 지면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악보에 때가 묻은 듯, 세상에서 온갖 죄,
고통, 아픔 등의 상처투성이가 되어있는
모습의 나 자신!

먼저 연필로 쓰여진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고 복사를 하고, 펜으로 쓰여져서
지울 수 없던 것들은 복사본에서 다시
write-out으로 하얗게 깨끗하게 덮습
니다. 그리고 겹게 나오는 부분은 칼로
잘라 냅니다. 마치 주님의 사랑으로 은
혜로 배려로 나의 죄, 못난 것들을 지우
고 덮고 또 잘라 내듯이...

많은 악보들을 한 장 한 장 그렇게 고
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때 나 또한
그 악보들과 더불어 나의 영육이 깨끗하
여짐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감
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이 지면
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그 감
사함에 답할 길이 없어서 악보를 준비하
다 말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시간 흐름에 관계없이
드리는 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악보들
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복
사를 합니다. 이번엔 8x11 용지에 꼭 차
게 확대해서 복사를 합니다. 찬양대의
모든 분들이 보고 읽기에 쉽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을 듬뿍 담아주세요.

그리고는 교회가 제일 한가하다 싶을

때의 주중의 하루저녁을 잡아서 할렐루
야 찬양대를 위한 마지막 대량 복사를
위해서 갑니다. 새 복사기로 바뀐 지금
은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지만 전에는 복
사시간이 거의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
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더
욱 소중한 귀중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촉촉이 젖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사가 시작되면 저의 발걸음은 본당
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본당에 들어서면 하늘로부터 내려와 흐
트러지지 않는 성전의 찬만하심이 느껴
집니다.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
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공간임을 느끼며 기도가 끝나면 피
아노 앞에 앉아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손가락이 건반 위를 두드려가고 그러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나의 미약한 것,
부족한 것, 틀리는 것 다 아시지만 사랑
하는 아들이 드리는 것이라 기쁘게 받으
셨고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악장을 하면서 지혜 또한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하얗게 비어있는 첫 장 '차례'
의 뒷면이 너무 가까워서 저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주님
께서 좋은 글로 채워 넣으라는 답을 주
셨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책에서,
글을 찾아 모으며, 또 글들을 써 넣게 되

었습니다. 많은 대원들께서 좋아하셨고 용기를 주셨고 많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서투른 것 많지만 모두에게서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기에 모든 것 많이 부족한 제가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또 비록 찬양대원은 아니지만 곁에서 저에게 사랑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휘자 조성식집사님, 반주자 홍숙희 집사님, 차은경 사모님 오랜 시간 저를 믿고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악장으로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모든 필요한 것 갖추게 하시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나의 미약한 것, 부족한 것, 틀리는 것 다 아시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드리는 것이라
기쁘게 받으셨고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나나 사역부는,



신동인 집사

자주, 사진을 찍기 위하여 들르는 곳이었는데, 항상 멀찍이에서 찍었기에, 작은 숲의 언저리에 야생의 포도나무들이 울타리처럼 서있는 것을 몰랐지요. 우연하게, 그 숲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혼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희한한 포도송이들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 것이었지요.

한 줄기의 송이에서 형형색색의 다른 색깔의 포도가 열려져 있는, 흔한 청포도나 검정 포도는 없고, 서너 가지의 다른 색으로 한 송이를 꾸뻐더라고요. 그 위에 반점과 줄무늬를 그려 넣어 멋을 내고 모양을 내면서요. 며칠을 그 곳에 들러 찍고 또 찍으며 집에 돌아와 밤에 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리하며 감상하며 황홀감에 빠져 몇 날을 보내었지요.

우리의 만남에서 상대로 주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여 정하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주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께서 정하시고 택하시어 만나고 부딪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상관하는 것이 아닌지요. 때로 반겨야 하고 고마워하여야 하는 배역을 맡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며 원망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원수 같은 배역의 사람도 만나지요.

학창시절,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시고 지우시듯이 만났다 헤어지고, 때로는 혹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며,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서로를 위하여 열심이 자기의 배역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귀한 광경을 예비해 주셨는지, 몇 날을 이 사진들이 말하여 주기를 기다렸 습니다. 한 줄기에 달려있는 이 색색의 포도 알들은, 이 모두는,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작품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이며 친구이며 원수들인 것을 깨달을 때 까지요.

주님의 인도로 교회에 새로이 온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배역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이 역들을 연출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정성을 드리지요. 죽어도 내가 아니



죽어도 내가 아니어야 하며, 저들이 예수 안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심사와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어야 하며, 저들이 예수 안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심사와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만나는 새로운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아끼시고 가슴에 품고 계시는 보석과 같이 귀하며 아름다운 것을 압니다. 어떤 색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라도요. 다만, 떨찍이어서는 보이지가 않지요. 만지고 느끼며, 부딪치고 상관할 때에만, 그것을 보게 되며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부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보석에 둘러싸여 즐기며 섬길 수 있는 배역을 맡았으니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받으신 영감으로, 간담하여 일을 맡기시고 손수 지휘하시는 윤승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어머니 같은 자상함이 여기에는 더

필요하기에 주께서 배역의 첫자리에 넣으셨나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시는 오분례 권사님이 부장으로 그리고 꼭정희 권사님이 총무를 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처럼, 온통 마음과 생각이 새 가족에 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경 조직의 선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바쁘신 손정민 집사님, 아무도 나타나기 전에 청소까지 마무리 해 놓으시는 정재남 집사님, 어떻게든 예쁘게 표현하려 애쓰시는 사진을 맡으신 유성민 집사님 그리고 굵은 일은 도맡아 해야 하는 막내 김상진 집사님이 계시구요. 일품 요리사 정미자 집사님, 상대의 아픈 곳은 껌이든 속이든 읽어내고 보듬어주는 채영남 집사님 그리고 완전한 프로 솜씨로 새 가족을 챙기는 이연일 집사님이,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도 전화를 통하여 도우며, 보살피며 섬기신답니다.

예배가 연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소를 잡고 새 옷을 내오며 새 신발을 준비하여야 하며, 행여나 마음 상하지나 않을지 조마조마 마음을 줄이기도 하지만, 김준택 장로님과 김종훈 목사님께서 든든히 뒤를 받쳐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여 주시며, 기뻐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알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찬송으로 바나바 사역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영접하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으로 등록시키고, 잘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며 돕습니



만나는 새로운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아끼시고 가슴에 품고 계
 시는 보석과 같이 귀하며 아름다운 것
 을 압니다. 어떤 색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라도요.

그 보석에 둘러싸여 즐기며 섬길 수
 있는 배역을 맡은 것이 바나바 사역부
 입니다.



다. 다섯 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위하여
 교실을 꾸미며 안내하며, 또 교육을 마
 치면 한 식구된 새 가족들을 위하여 환
 영 파티를 엽니다. 그 동안 누가 결석을
 하였는지 살펴서 연락도 하고 주보도 보
 내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구요.

우리들의 자그만 바람은 이 아름다운
 배역이 단지 몇 사람의 바나바들에게만
 맡겨지지 않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
 식구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
 누어 동일한 은혜에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배역에 뜻과 마음이 동하는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중에 새 가족들
 과 바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
 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 때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 때는, 우
 리 모두 주님과 함께 바나바와 자리하여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즐길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히스패닉 사역/무료영어교실

CCM 강인영

At first, I didn't know what to expect. I wasn't nervous about teaching English to Spanish minorities, but I was curious to know their ability and capability in learning the English language. As they entered the church, automatic smiles lit on their faces and we greeted them back with warm welcomes. Before we ate, I found them all participating in prayer and wondered how many of them actually even believed in God. They would praise with us and listen to the sermon with occasional nods here and there but did they really believe? As we spent several Mondays together, I started to look forward to our next meeting. It was always the same; the Spanish minorities entered the church the same way they exited—with a friendly attitude. When we, the teachers, started to teach them



English one on one, a lot of them were struggling. But even their struggles were full of smiles because not one of them seemed to be discouraged. I am sure they have many problems of their own, but one would be fooled to know they had any because they only showed laughter and humor. It was as if the room we occupied made you forget all your worries of tomorrow. If we tried to help them write or solve something and they still didn't understand, they would just laugh instead of growing impatient and frustrated. I remember a man, who seemed to be in his sixties, trying hard to figure how to write a certain word. I tried to help him by slowly spelling it out. With every letter I spelt out, he would get confused. I would repeat the letter he was stuck in over and over again, and yet, he never became



grumpy. I guess it's because I'm an impatient person, but this man is my role model. This observation made me reflect how respectful they were and how thankful I was to be. What I gained from teaching English to Spanish minorities sounds cliché, but I learned to be more thankful of the things I take for granted. Knowing how to speak in English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teach and even learn in return. I didn't think that I had any thing valuable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so I have only been receiving... but God has reminded me that everyone has something to deliver. As I mentioned before, I don't know if they all truly believe in God, but if any of them were hesitant I hope we were able to strengthen their doubts through our actions.

히스패닉 사역 맨하탄전도



류석환 집사

그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리 한 모퉁이에 삼삼오오... 허름한 옷에 노란 작업화를 신고,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눈빛들..... 오늘 아침도 이른 새벽부터 하루별이를 위해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 옆 동료는 일 잡아 떠나고, 떠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줄어갑니다. 여덟시를 넘어 아홉시로 가노라면 그들의 입에서 한숨이 섞여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당 벌기는 어려운,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낯설은 땅에 그들은 이민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벌어진 금쪽같은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느라, 오늘도 생활비를 아깁니다. 한 방 안에서 여럿이 쪽잠을 잡니다. 제대로 씻지를 못해 몸에서 옷에서 냄새가 납니다. 아플 때 병원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많은 어떤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못잡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냅니다.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이 모자랄 뿐입니다. 고향이 그리웁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원치 않지만... 충족하지 못해서 외롭고 배고플 뿐입



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늘도 길 모퉁이에 서 있는, 도와야할 우리의 형제요, 이웃입니다.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때까지, 빵으로... 복음으로...

우선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2014년 6월부터 매주 월·수·금 아침마다, 기부받은 빵과 컵라면과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무어 그리 큰 것이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여향을 위해 2015년 봄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초급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배로 인도하려 합니다. 같이 동참해주시겠습니까! 기도로... 봉사로... 기부로...

아침스낵봉사 - 매주 월·수·금, 아침 7시~9시

초급영어교육 - 매주 월, 저녁 8시~10시

♥ 기도: 이 사역이 잘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기부품: 생활필수품 (쌀, 라면, 캔식품, 장갑, 옷, 구급약 등등)

♥ 기부금: 일회 또는 정기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형제를 생각하며, 함께하면 쉽습니다.

- 히스패닉 사역부 -



제자훈련은 선물!

김세희 성도



우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는 날까지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지도를 해주신 미술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병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꾸준한 교회에 출석하는 저를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에 졸업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출석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1년간 사정상 원주 집과 청주 처가를 왕래하며 교회를 두루 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한 교회에 정착하여 말씀으로 양육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어 왔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교회를 찾는 중에 예일교회를 알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예일교회에 처음 오고 주일 말씀과 특히 새벽기도 욕기 강해의 끝부분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랬던 대로 주저하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예일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바로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은 말씀으로 양육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어 왔던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바쁘게 정착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도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일예배를 통해 말씀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 부부 두 사람 다 이견 없이 바로 일대일 제자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신 조태성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각각 아내와 저를 일대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자훈련을 통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부부가 미국생활에서 마주치게 된 여러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셨습니다.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저희 부

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노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내와 장모님의 염려와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 부부가 갖게 될 아이에 대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여러 의미와 간절함과 이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제자훈련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며 크고 작은 다짐도 가끔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더욱 더 이해하게 되고 지적이나 감정적인 교류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인 삶을 나누며 조금씩 하나의 온전한 부부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깊이 있는 묵상이 익숙지 않았던 아내에 대해 처음에는 아내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만 생각했다가 아내의 원망에 오히려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었습니다.

다. 아내와 함께 나누고 아내의 묵상을 도와주자 금세 스스로 깊이 있는 묵상을 해내는 모습을 보았고 제자훈련 기간 동안 여러 일들로 아내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연합을 경험하며 하나님 중심의 제자로써의 삶에 대해 배워가는 동안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 부모로써의 태도를 예비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나자 교육을 마치고
바로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은
말씀으로 양육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어 왔던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예일교회에 온 순간부터 항상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지켜 봐 주신 모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김정순 집사

처음 101을 시작할 때 나는 걱정 반, 설레임 반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40년 전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청년시절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야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된다는 믿음의 길목까지 왔지만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 성경공부를 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에는 예배시간에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만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찬양하는 것이 다 인양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저 그냥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배웠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게 이 귀한 깨달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쁜 시간 속에
서 한 주 한 주 하다보
니까 어떤 때에는 매우
힘들어서 한번 빠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교회에 나가 전도사님과 대화 속에, 말씀 속에 빠져 들면 제가 전혀 생각 못한 예전에 그저 읽고 지나간 말씀 속에 또 길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저 그냥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배웠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함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목표를 발견하다



전용수 집사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한 지 9개월째 되던 가을, 누나와 함께 부모님을 따라 남미 이민 길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먼저 미국 뉴욕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봉제공장에 다니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고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1991년 4월에 저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적응도 안 되어 다시 남미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을 때 문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장 12-13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봉제공장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 후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일성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세 자녀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저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모든 일에 힘 닿는 데까지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장 12-13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잡아 주셨습니다.

2012년 8월에 저희 가정을 예일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즐겁고 은혜스럽게 그리고 부족하지만 봉사도 하면서 지내 오던 중, 아내로부터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형식적인 걸 해야 하느냐”고 묻자 “여태껏 살아오면서 단 한번이라도 정식으로 성경공부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하며 같이 공부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성경공부는 일주일 후에 괜히 했다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탓에 교재를 공부하는데,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의 위로에 힘입어 “그래, 이왕 시작한 제자훈련 확실하게 하자!”는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구해 주신 스페니쉬 성경사전, 영어 교재,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에서 4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지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훈련 받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았고 더욱 열심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구해 주신
스페니쉬 성경사전, 영어교재,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에서 4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훈련 받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진 집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훗날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도 나오는 전혀 상관없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과거에 교회 내에서 행하여졌던 직분자들의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언행을 접하며 나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괜히 제자훈련을 받고 직분도 받아서 앞에 나서서 일하기보다, 조용히 내가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봉사를 드리며 주님 뜻 안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고집 부리며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받기를 사양했던 제가 이제 101제자훈련 마지막 끝자락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계기로, 혹은 그 어떤 상황이 나오하여금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대답하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무엇인가 이끌림에 따라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던 중 드디어 나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던 날이었습니다. 저의 양육자이신 강세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진 집사님과 이 밤에 이 공간에서 돌이 마주 앉아 이렇게 성경공부도 하고, 애기도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 같은 부족한 종과 더 가까이 하시고 싶으셨던 주님께서 제자훈련에 대해 닫혀 있었던 저의 마음문의 빗장을 친히 푸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소중한데,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삶속에 어떤 험한 태풍이 와도,
거친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하여 주시는 지를 말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나의 경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14번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때마다 새로이 덤으로 주셨던 삶들이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만 갔었는데 이제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새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릴 적 주님과 순수한 만남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생활을 다시 재정립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확실치 않았던 것이 확실해졌으며, 약해졌던 것이 다시 견고케 되었고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머리와 마음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것이 다시 나의 생활 가운데 뚜렷하게 적용되며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삶속에 어떤 험한 태풍이 와도, 거친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안고 나로 하여금 힘차게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이제는 더욱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될 때까지 권면의 말씀과 기도로 힘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저로 인해 많은 속앓이를 하셨을 윤승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시고 때에 따라 용기와 위로로 함께 삶을 나누어 주신 강세훈 목사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자훈련을 마치며

김현민 성도

3년 전에 받았던 101제자훈련은 저에게 그때 당시에 영적치료와 평안 그리고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깨달음도 잠시 그 후에 저는 바쁜 삶에 찌들어갔고 죄를 짓는 것에 다시 익숙해 갔으며 여전히 기회주의적인 인스턴트식의 기독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기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크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나의 작은 봉사들에 대해서도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정도면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만족을 일삼았고 자기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찬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내 사람이라는 터울을 정해놓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무관심으로 대해 왔습니다.

그런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고 변함없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과제가 많기로 유명한 201제자훈련은 그저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낙천적인 성격인 저는 우선 저질러 놓으면 알아서 잘 따라 가겠지 라는 작은 마음으로 201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았던 그 선택은 제 자신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한 훈련이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 라는 혹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피로보다도 과제들을 통해 훈련들을 통해 그리고 간증들을 통해 제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던 간증은 매주 과제를 발표하고 간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게 되었고 그 시간 안에서 커다란 치유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하고 가장 커다랗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내 자신의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자로 자랐고, 어릴적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주옥 지금까지 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기간은 저에게 교회 자체를 익숙한 것들로만 치부하게 해버리게 했고, 그런 익숙함은 저에게 또 다른 딜레마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

나님의 자녀로서의 나태함 내 자신의 안일함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신 큰 은혜들을 마치 당연하게만 여기게 되는 그런 커다란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201훈련은 그런 저에게 수많은 과제들을 통해 시험받게 하였고 마침내 훈련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안일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커다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지만 너무 교만한 나머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저에게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다른 큰 부분이었던 겸손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즉 타인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겸손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온 사람들게만 허락된 것이라고만 단정 짓고 굵은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덕분에 겸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는 훈련이 덜 된 사람이라고 못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훈련 시작하고 8주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연적인 상황들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고 울부짖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더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을 지나 201제자훈련을 하면서 뜨겁게 타오르던 13주의 시간은 제게 내 마음속 하나님의 재정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나의 훈련들과 방법들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큰 행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과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201 제자훈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의 재정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나의 훈련들과 방법들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박이일의 목장에배를 드리고



신동인 집사

설렘과 기다림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일박이일의 그 예가 목장에배는 배어져 있던 정성과 섬김의 그 따스한 마음들이 향같이 은은하게 흘러 나왔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었지요. 시간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면서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때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영원이 순간 속에 그리고 순간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벽에 패종시계가 걸려 있었지요. 아홉시 반을 가리키는 허리가 아프면서도 몇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다” 할 때에야 새벽 영시 오 분이라며 이제 아홉시 반인데 그제야 그 시계가 멈춰져 있는 것을 알았지요.

드라마 같은 삶의 장면들을 풀어놓는 집사님의 시간들 지나온 같은 공간에서 별세계 같이 벌어진 현재 닥친 어려운 상황들로 고통하는 신음과 탄식을 나누며 웃고 그리고 한마음으로 아파하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의 가정들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주님께 드렸던 간절한 합심기도의 시간들, 오늘 주어졌던 영생을 위

하여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고통으로 슬픔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영원한 그 잔치에 참석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질은 어두웠던 밤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고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참 밝음의 소중함을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누구에게는 건강으로, 자녀들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단절과 고독으로, 서로 다른 상황과 관계와 여건들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시인 것일요.

한해를 같이 할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며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소망을 갖는 한 식구들로 김치 네 박스를 담아 손 대접하기를 걱정하는 큰 마님부터 온갖 허드렛일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막내까지 밤 열시 반에도 일을 마치고 그 시간에도 아랑곳 없이 목장에배에 참석하는 집사님 가정에 아직은 섞이고 엮여지기 쉽지 않은 젊은 부부들을 챙기는 목사님까지 얼어

붉은 눈 덮인 길을 걸으면서 꽃피는 새 봄이 오고 그리고 뜨거운 더위가 오면 오늘들을 기억하며 붙들어 주고 나누어 주고 보듬어 주면서 결실의 때에 우리들이 커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주안에서.

체험예배

오늘의 목장예배는 주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체험예배이다. 장소는 권영신 홍선영 집사님 가정, 때는 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여덟시 반. 이 체험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드려진 정성, 시간, 거리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며 연출을 맡아 주신 집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오늘의 주인공 웨프 홍선영 집사님, Pink Lady 글로리아와 권영신 집사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집에 들어서면서 마을지기 장로님은 벌써 와 계신다. 그새 며칠을 못 만났다고 깔깔거리며 수다와 정을 나누는 후, 올 식구들이 거의 도착하자 식사를 시작한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잘 차려진 식탁이 범상치가 않다. 큼직한 그릇에 가득한 열무김치와 돛나물과 아보카도 그리고 베이비야채로 만들어진 샐러드가 커다란 사기그릇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첫 음식인 도토리묵국이 나온다.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고향의 토속요리인데 몇 십년 만에 이것을 미국에서 만나다니 하시며 다른 식구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음식은 어린 아이 손가락 크기로 길게 썬 도토리묵으로 만든 요리이다. 육수와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도토리묵의 맛을 즐기고 있는데 홍 웨프는 오늘의 메인메뉴가 따로 있으니 그것으로 배 채우지 말한다.

첫번째 메인, 큰 쟁반에 가득한 짙은 갈색요리가 들려져 나온다. 이름하여 말린 도토리묵 무침, 미국에서 온 자식에게 먹이겠다고 도토리를 따서 빵아 보관한 가루로 묵을 쑤어서 햇볕에 말리고 꼬들꼬들 해지면 소쿠리에 바쳐 말렸단다. 미국에 올 시간이 촉박하여 덜 굳어진 묵을 방에 군불을 집혀 가면서 말린, 한국에서부터 목장식구들 먹일 생각으로 가져온 귀한 재료이다. 갖은 고기와 함께 버무리고 양념한 정성으로 준비된.

두번째 메인, 된장국과 호박국 그리고 열무김치를 버무리 먹으라고 쌀반 보리반의 밥이 나온다.

맛있게 먹이려고 둥근 조선휘박을 구하려 한 주일을 삼만리를 헤매서 찾아냈단다. 맛과 재료들의 궁합 그리고 드러진 정성과 사랑의 식탁이다. 옆에는 찬조출연으로 더해진 총무 집사님의 매 목장 예배 때마다 고정메뉴로 등장하는 초밥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 쑤어온 청포묵도 자릴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 하시고
나를 살리려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서른 세 살의 그 청년
예수의 그 사랑에 매어

오늘도 오염하며 몸부림치는
한 여인이 뿜어내는 핏방울 같은
땀과 정성으로 간을 하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지고
마르다의 정성으로 맛과 향을 낸
도토리 가루같이
곱게 뺏아지고 죽어져서
부드러운 묵으로 차려진 식탁.

케이크와 과일로 후식을 마치고 커피
까지 마치니 시간은 벌써 열시반이 넘어
선다. 한국에서 오시는 어머님을 공항에
서 픽업하신 손동희 집사님이 도착한다.
마음은 콩밭, 목장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을 졸였을까. 이
목장의 시간개념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
이로스가 분명하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사로 때문에”
였다. 마르다의 봉사, 마리아의 헌신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하
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 오늘 마르
다의 그 봉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홍 집사님이 보여준 이 섬김과 함께 오
버랩 되어 말씀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다.

나드 한 근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던
의문을, 준비된 교안에 대략 12온스라

고 명쾌하게 답하여 주며 그것이 얼마마
한 용량인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
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향유가 어떠
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 나사로 때문
에 나 누구누구 때문에 또 한번의 짙은 향
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맺는다.

이 목장의 목자인 손정민 집사님, 이
목장의 비밀병기인 새로 수정되고 보완
된 <예가 목장 기도제목>을 나누어 주며
더 추가될 것들을 챙기신다. 여기에 올
려지는 기도제목은 정한 시간에 정확히
응답된다는 믿음의 간증들을 자주 듣는
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마디도 빠트릴
수 없는 귀한 간증들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니 몇분 전 자정이다. 인사를 하면
서 헤어진 또 한 번의 일박이일의 예가
목장예배.

늡으면 눈물이 흐해지나 주님께서 열
납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 이렇게 흥선
영 집사가 깨트린 옥합에서 흘러나온 아
직도 짙게 묻어있는 나드 향기가 뻗 또
한번의 체험예배를 드린 예가목장의 예
배를 떠올리며 눈물이 핑 돈다. 봉사, 헌
신 그리고 죽어진다는 것이 부활이요 생
명 되신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되새기며 복된 이 길
을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을 드리며 나도 피우리라
또 한 번의
나 때문에를
다짐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강철순 집사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이민 생활에도 불구하고 네일 가게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실히 가게를 운영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술과 담배를 이 시기에 나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새벽제단을 통해 25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을 어렵게 끊게 하셨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말씀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탓에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참석해 보라는 권유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보기로 결심했다.

너무나도 하나님과 성경에 무지했던 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다. 그녀도 못된 남편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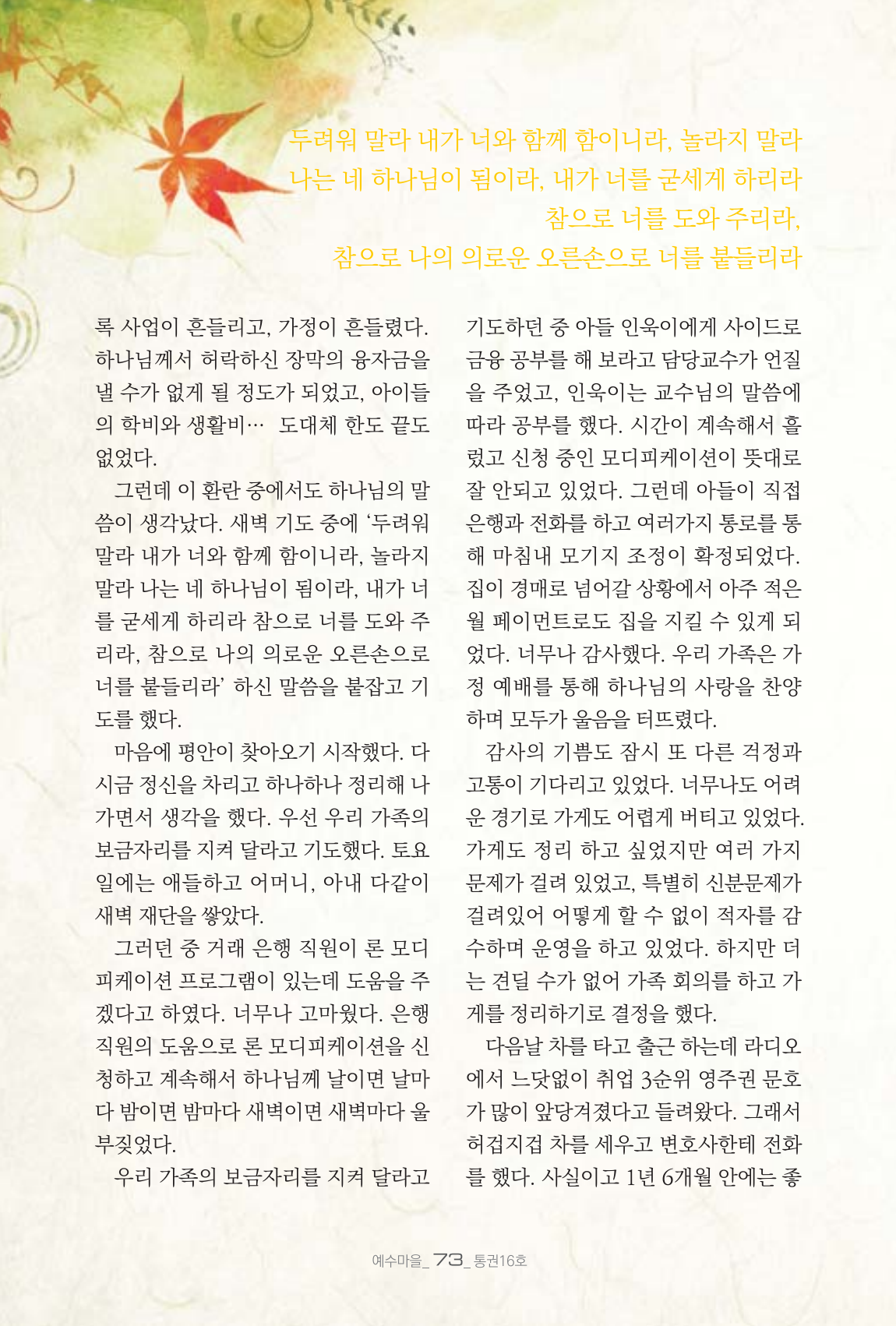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쑥쑥 재미있고 궁금하고 더욱 말씀으로 빠져 들었다.

그러던 중 손님으로 인연이 된 김영애 집사님으로부터 주일 성수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에는 가게를 닫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싶었는데 집사님의 권유로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 매상 걱정도 조금 했지만 채워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서 컸다. 믿음이 적중해서 매우 기뻐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욱 커져 갔고, 더욱 신뢰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삼 년이 흘렀다. 어머니와 아이들과 우리 부부, 너무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 우리에게 큰 시련의 시간이 닥쳐 왔다. 그것은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비즈니스가 큰 혼란에 빠진 것이었다. 하지만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스폰서가 필요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목장의 목자였던 집사님의 명의로 가게를 하나 더 오픈했다.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웠다.

그러나 나의 머리는 대 혼란 그 자체였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록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의 용자금을 낼 수가 없게 될 정도가 되었고,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 도대체 한도 끝도 없었다.

그런데 이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새벽 기도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 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생각을 했다. 우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토요일에는 애들하고 어머니, 아내 다같이 새벽 재단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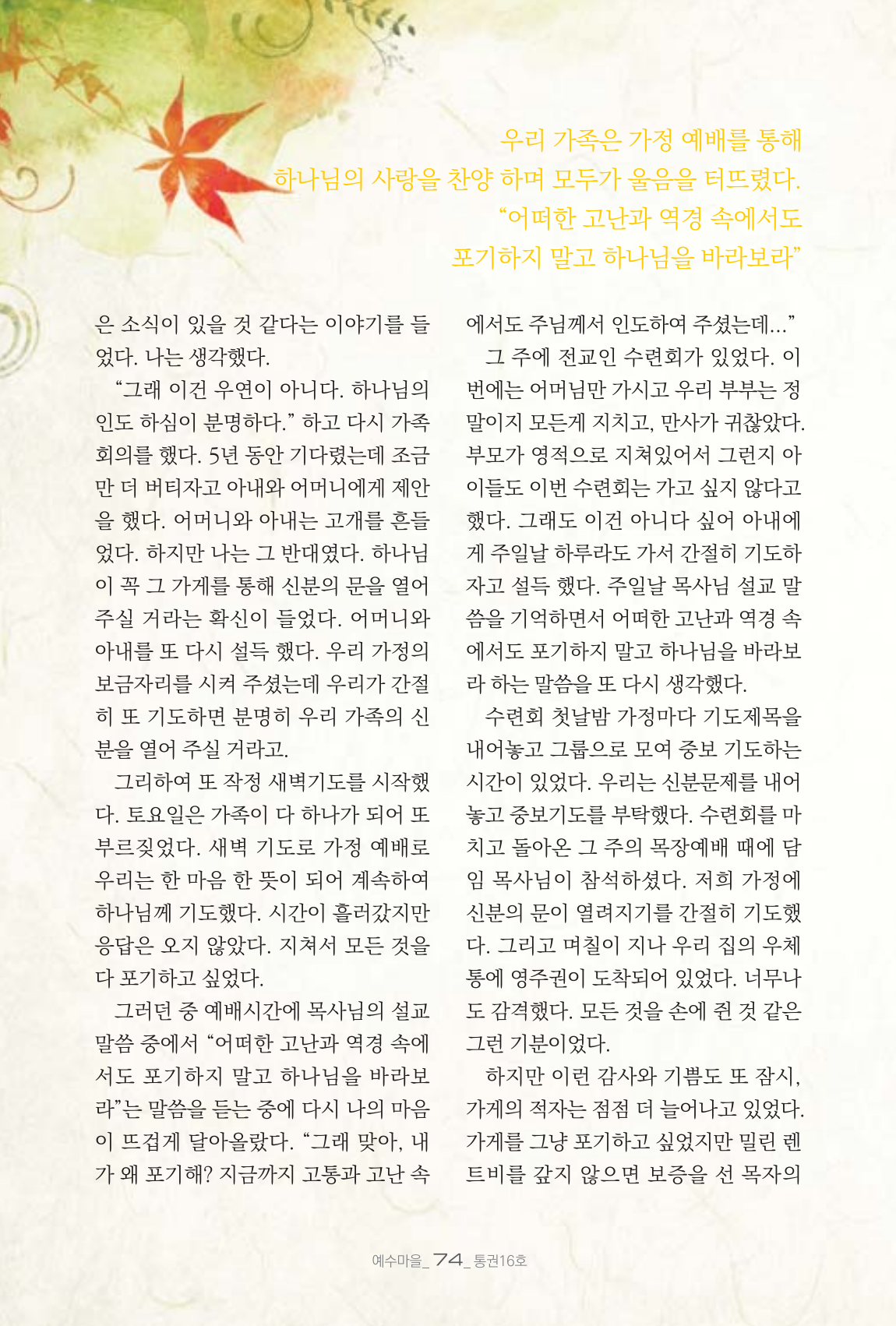
그러던 중 거래 은행 직원이 론 모디피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너무나 고맙웠다.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론 모디피케이션을 신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울부짖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 달라고

기도하던 중 아들 인옥이에게 사이드로 금융 공부를 해 보라고 담당교수가 언질을 주었고, 인옥이는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공부를 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신청 중인 모디피케이션이 뜻대로 잘 안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직접 은행과 전화를 하고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마침내 모기지 조정이 확정되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아주 적은 월 페이먼트로도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했다. 우리 가족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걱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로 가게도 어렵게 버티고 있었다. 가게도 정리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고, 특별히 신분문제가 걸려있어 어떻게 할 수 없이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가족 회의를 하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다.

다음날 차를 타고 출근 하는데 라디오에서 느닷없이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많이 앞당겨졌다고 들려왔다. 그래서 허겁지겁 차를 세우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 사실이고 1년 6개월 안에는 좋



우리 가족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하며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분명하다.” 하고 다시 가족 회의를 했다.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만 더 버티자고 아내와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다. 어머니와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하나님이 꼭 그 가게를 통해 신분의 문을 열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머니와 아내를 또 다시 설득 했다.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가족의 신분을 열어 주실 거라고.

그러하여 또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토요일은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 또 부르짖었다. 새벽 기도로 가정 예배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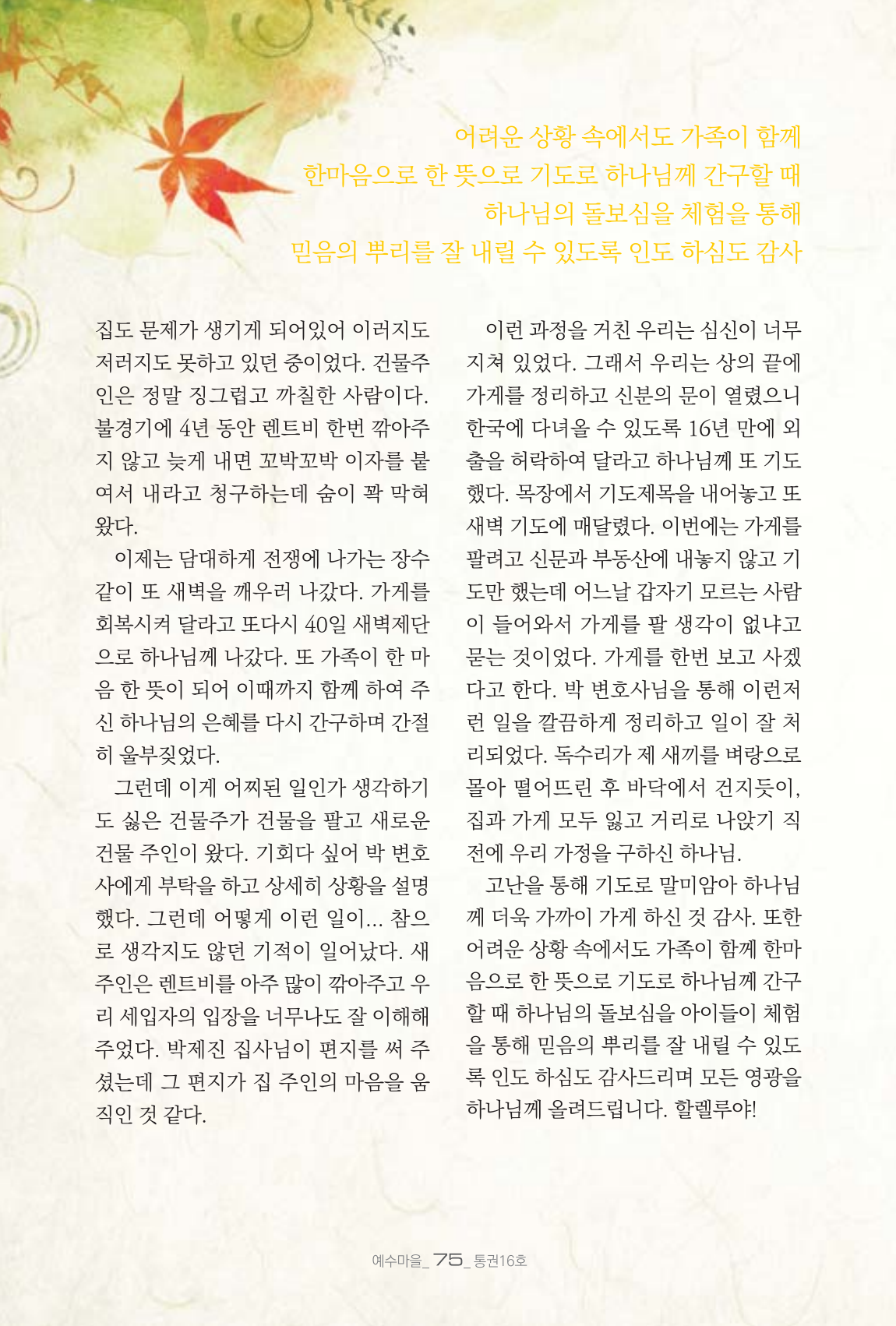
그러던 중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나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래 맞아, 내가 왜 포기해?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 속

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주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님만 가시고 우리 부부는 정말이지 모든게 지치고, 만사가 귀찮았다. 부모가 영적으로 지쳐있어서 그런지 아이들도 이번 수련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내에게 주일날 하루라도 가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설득 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또 다시 생각했다.

수련회 첫날밤 가정마다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그룹으로 모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신분문제를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 주의 목장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셨다. 저희 가정에 신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우리 집의 우체통에 영주권이 도착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감격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감사와 기쁨도 또 잠시, 가게의 적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가게를 그냥 포기하고 싶었지만 밀린 렌트비를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선 목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한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 하심도 감사

집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건물주인은 정말 징그럽고 까칠한 사람이다. 불경기에 4년 동안 렌트비 한번 깎아주지 않고 늦게 내면 꼬박꼬박 이자를 붙여서 내라고 청구하는데 숨이 꽉 막혀왔다.

이제는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는 장수같이 또 새벽을 깨우러 나갔다. 가게를 회복시켜 달라고 또다시 40일 새벽제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또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때까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며 간절히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기도 싫은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 새로운 건물 주인이 왔다. 기회다 싶어 박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상세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참으로 생각지도 않던 기적이 일어났다. 새 주인은 렌트비를 아주 많이 깎아주고 우리 세입자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주었다. 박제진 집사님이 편지를 써 주셨는데 그 편지가 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친 우리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의 끝에 가게를 정리하고 신분의 문이 열렸으니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16년 만에 외출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 목장에서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또 새벽 기도에 매달렸다. 이번에는 가게를 팔려고 신문과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를 팔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것이었다. 가게를 한번 보고 사겠다고 한다. 박 변호사님을 통해 이런저런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이 잘 처리되었다. 독수리가 제 새끼를 벼랑으로 몰아 떨어뜨린 후 바닥에서 건지듯이, 집과 가게 모두 잃고 거리로 나왔기 직전에 우리 가정을 구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신 것 감사.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한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 하심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유은사

지은이 | 마헤쉬 차브다, 역자 | 배응준, 출판사 | 규장



김은희 집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저자는 신자들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 신학적인 논설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는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의 치료의 바람이 우리의 삶과 사역위에 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라고 말한다. 신자란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자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신자라면 표적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바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을 도와 그들 삶속에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성한 기름부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소명에 합당하게끔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고통과 신음하는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신다고 말한다. 저자는 제시하고 있는

교훈과 원칙들을 25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세워진 것들로, 지난 사역 기간 동안 나타났던 수백 가지의 놀라운 병 고침 사례와 증거들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영적인 진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이적을 눈앞에서 목격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의 기름부음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연다. 이적은 믿음의 성과이다. 속담에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즉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오래전 저자는 의학부 학생이었을 때 해부학 연구를 위해 많은 표본들을 해부했다. 그런데 한순간 내가 죽은 것들을 해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 운동한다. 분석하고 해부하는 대신 어린이가 같은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해부와 분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추구한다. 반면 기름부음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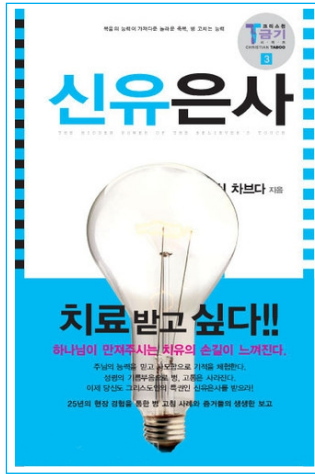
때론 성령은 우리가 시험을 받게 내버려 두신다. 고꾸라지는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원수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음흉한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원수를 압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라야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배울 때 주님의 능력과 기름부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장차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는 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절단이 되어야 한다. 교만과 비판과 편견과 저주와 완고함은 성령의 기름부음과 병존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유일한 방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 생활과 사역에서 치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숨겨진 열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다. 성만찬을 거행하면 그리스도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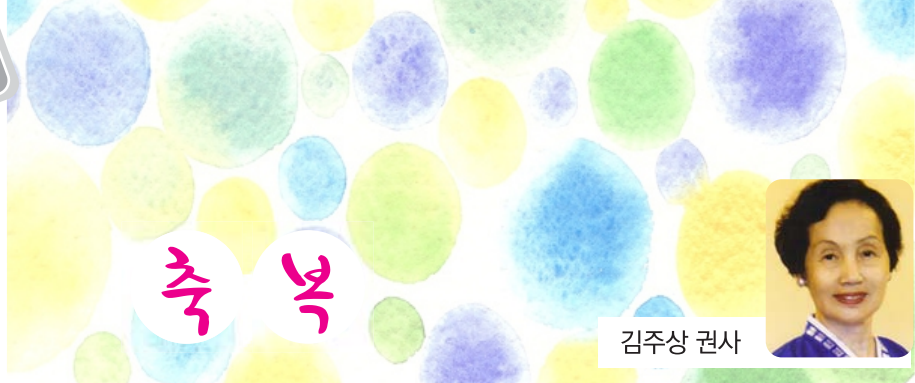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만약 쓴물을 만날 때에 마귀의 거짓말에 기만 당하지 말라. 마귀는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닥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마귀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임을 기억하라.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삶과 환경속에서 자신을 계

시하고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을 쓴 물가로 데려 가셨다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쓴물을 변화시켜 기쁨과 축복이 보글보글 솟는 풍성한 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14:12).’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에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읽어 나갈 때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시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시며 새롭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이 치료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책을 읽은 후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라. 그리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글을 마쳤다.



축 복

김주상 권사



나는 오늘도 노을 앞에 마주 앉았다. 불과 10분전 낙조의 태양이 이글거리며 내려앉는 순간을 반원, 사분의 일 원, 하고 보다가 계란 노른자가 흐물흐물 움직이듯 꼴깍 사라진 스카이라인 위로 화살 같이 분출되는 반사하는 빛에 찔려 눈을 감았다.

다시 뜬 눈에 비친 순간의 스카이라인은 맑디 맑은 연분홍 줄기가 놓이고 그 줄기위로 해맑은 옥색 띠 줄의 하늘이 수줍은 어린 소녀의 미소같이 여러개 길게 퍼져 나왔다. 노을에 이런 얇은 옥색 하늘은 흔치 않은 일이라 그 맑은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동안이 10분 흘렀을까. 분홍줄기는 점점 넓어진다. 곱게 넓어지다 슬며시 피 빛으로 덮이어 온다. 그러나 남쪽으로 아직도 남은 푸른 띠도 점점 넓어지더니 하늘은 어느덧 검푸른 색으로 온 공간을 덧칠해간다. 10분 아니 15분 천천히 어두움으로 깔려오기 시작한다.

무한 공간에서 어둠이 밀려드는 잔잔한 울림 앞에 흠뻑 잠긴 내 물골은 처연해진다. 멀리 별빛 아닌 반짝이는 비행기 불이 점점 앞으로 다가온다. 하나, 둘, 그 반짝임이 눈을 밝혀 나를 깨운다.

낮과 밤이 서로 스며들고, 섞이고, 번져가는 해질녘 지금, 이런 때는 마치 빛과 어둠이, 현실과 환상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각이 아닐까. 몽롱한 환각속에 묘한 감정이 살며시 파고 든다. 그래서 하루 내내 틀에 갇혔던 일상의 시간에서 잠시 비켜서서 인생에 대해 영혼에 대해 사색에 잠긴다.

바로 이 순간을 누리는 지금, 이미 지나가 버리는 순화된 깨끗한 심정은 현재 이면서도 그리움이 되고, 애뜻한 여음으로 이어지는 슬픔이 된다. 내가 영혼으로 남아 이 순간을 지켜본다면 인생의 꼬트머리에서 돌아보는 긴 여정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절절히 흘러들 것이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애절함이 간절하게 이어져 두렵고 쓸쓸하게 떨려올 것이다. 그러면 나를 울게 만들 것이라는 예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또한 이 순간을 누리는 순간, 이미 지나가버리는 시간. 그래서 현재 이면서도 그리움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체가 되어버린다.

나는 벌써 축축히 눈가가 젖어온다. 일상에서 이제껏 당연지사라 여기며 무심했던 일들에서, 범상한 것에서, 범상

치 않은 의미를 알게 되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발견해서 놀라고 신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육신의 늙음과 함께 판단의 느려짐에서 오는 사고의 넓이가 깊어져서가 아닌가.

휘트먼의 시구에서 “모든 시간의 명암은 하나의 기적이며 일 입방인치의 공간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한 말이 맞는다면, 평범한 인생의 나날들의 사소한 변화들이, 예상로운 수순이라 생각했던 나이 들고 소멸되는 것도,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기적의 연속임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 인생은 이런 기적들을 알기 위해 숨 가쁘게 또는 휘적휘적 달려온 것이 아닐런지. 육신이 늘어갈수록 눈길과 마음에 닿는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선해진다는 이 아이러니는…….

그래서 인간은 신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인간은 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식속 구석부터 어릴적 성장과정까지, 또 외형으로 보이는 가족관계 친지, 친구관계 나 자신의 나의 길, 환경 등을 둘러보다가 참 많은 축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인간살이 천층만층의 양상 속에서 나는 올바른 규범속의 뼈대와 학식을 겸비한 덕망 있는 집안에서 살아온 것이 더 없는 축복임을 새삼 느낀다. 이런 축복받은 기적이 내게 있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수많은 인종이 뒤섞여 움직이는 뉴욕에 살다보니 정말 인간의 층층이를 눈에 띄이도록 보게 된다. 이런 객지에서 우



리 교포1세들은 후세를 위해 새 터전을 닦아 뿌리를 내린 기적, 제2의 고향을 고군분투 일구어낸 기적을 깨달을 때 더 할 수 없는 축복받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의 30년 뉴욕생활을 뒤돌아본다. 자식들 성장해서 결혼, 분가하고 손주들 대학가고 이런 인간사는 일반과 같으나, 특별한 축복이 내게 임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특별한 축복의 두 축! 그 하나는 몇 번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지도하는 길을 열어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뉴욕에서 동양화를 지도해서 많은 사람에게 한국의 전통화부터 현대한국화까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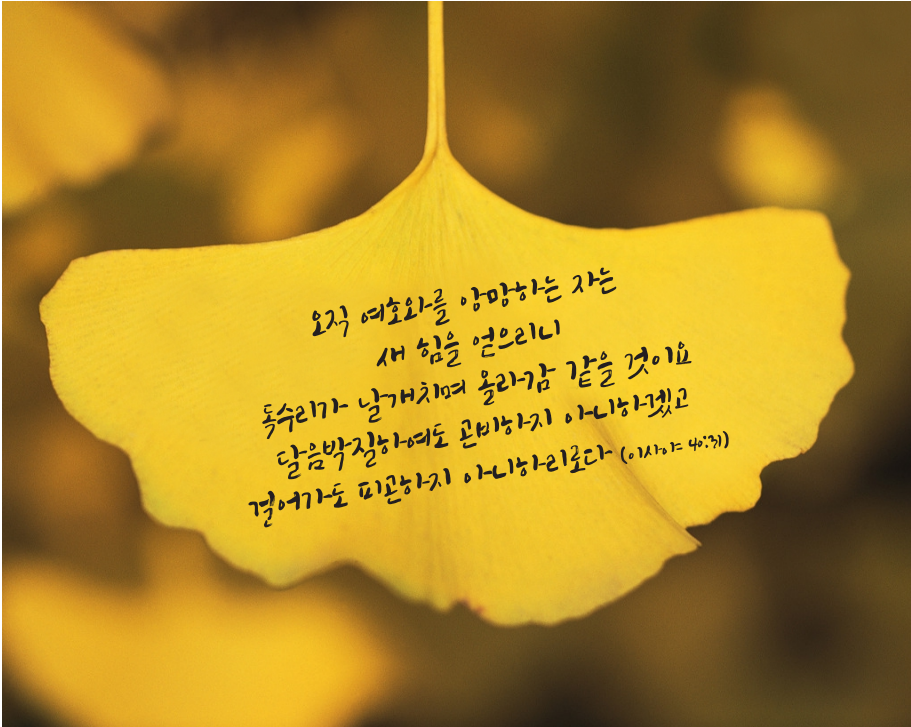
라 후진을 양성하여 뉴욕에 한국화의 전통을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제자 예닐곱명이 나아가서 가르치고, 내쉬빌로 이 시간 제자는 그 곳에서 노인들, 학생들을 한국학교에서 지도하니 대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그 결과에 참으로 감사했다. 지도받은 제자가 피라밋과 같이 뻗어나가서 어떤 분이 나를 두고 뉴욕에 한국화를 뿌리내린 문익점이라고 말한다. 송구스럽지만 맞는 말이다. 그러니 내가 뉴욕으로 이민 온 것은 천시(天時)를 만난 것이었다. 이 모두는 아주 특별한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늘은 캄캄한 장막으로 내려앉았으

나, 스카이라인과의 접경은 아직도 흰하다. 밤이 내려와 어둠이 깔리면 우리는 무의식속으로 안식을 찾아 떠난다. 수명이 다하면 미지의 세계 저나라로 떠나는 것이, 밤의 꿈나라로 떠남과 같지 않은가. 고요해야할 밤이지만 지표의 울림인지 웅웅----- 묵직한 팽음은 나직히 울려온다.

우주공간속 밤 앞에 홀로 서니 인간 본연의 외로움이 바람결에 실려와 살며시 나를 파고든다. 이 외로움! 나는 정녕 홀로인가! 아니, 내게 축복주시는 분과 함께 서 있지.

오늘도 나는 시간 앞에 마주 앉는다.



공훈 (용서, 용납)



현중렬 집사

저는 모태신앙인지라 교회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느라고 성경도 한 200-300번쯤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성도들로는 받기 어려운 훈련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간사도 여러번 했습니다.

집작 하셨겠지만 내 안에 있는 성경지식들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고 그 지식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교만해져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일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101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같은 사람한테 무얼 더 배우란 말인가 하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처음 4시간 정도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집에서 소위 예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보서 2장 5-11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하셨으니 곧 십자

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죽으시기 위하여 순종하시므로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간의 공생애 후에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에게는 공훈하신 마음으로 용서, 용납하시었습니다.

요즘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여러번 김종훈 담임목사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속에서 형제 자매들은 용서 용납하시며 공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팠던 이야기

이근만 집사



이제는 이야기를 훨씬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은 암환자와 또 그 가족으로서 겪는 일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고 그 만큼 마음에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연히 하게 된 유방암 검진에서 아내는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생활습관과 음식 조절을 잘 해 오던 아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야' '누군가가 사무행정상 실수를 한 것이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밀검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아들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에야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암과 같은 무서운 병은 항상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지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 오리라고는 생각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항상 건강 하였으니 말입니다.

전문의와 정밀검사를 하며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내과, 외과, 암전문의 등 여러 다른 의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수십 차례 들락날락 하면서 두려움과 근심만 늘어났습니다. 병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쁜 암세포가 퍼진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한 후에는 회복실로 보내지며 회복 상황에 따라 퇴원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아내는 환자가 될 본인의 입원준비를 위해 침착하게 물건을 챙겨 가방을 만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병원에서 마취주사를 맞고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가지라고, 수술이 잘되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마취되는 동안에 아내는 익숙한 시편 구절을 혼자 읊조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몇시간 후 수술을 마친 의사를 만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를 봅니다. 한쪽 팔에는 약물이 투여되는 주사가 꽂혀 있고 코에는 산소를 불어 넣어 호흡을 돕는 튜브가 달려 있었습니다. 환자가 되어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온 후에도 회복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의사의 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오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내의 어릴 적 친구가 여러 날 동안 집에 와서 도와 주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암을 겪었고 회복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친구의 위로와 도움이 컸습니다.

수술 후에 몸이 어느 정도 추스러진 후에는 또 다른 넘어 가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암 세포가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독한 약물을 몸에 주사하는 것입니다. 워낙 강한 약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두세 달에 걸쳐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이 험고, 열이 나며 온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항암치료가 진행되면서 아내의 긴 머리가 한줌씩 빠져 방 바닥에서 발견될 썸, 아내는 아는 미용사를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병원을 수십 차례 들락날락 하면서 두려움과 근심만 늘어났습니다. 병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어차피 다 빠질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서 백담사 주지스님 헤어스타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처음 보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아내는 혼자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게 들켰습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의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또한 처음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마을지기로 있는 장로님 내외분이 오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해 하셨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수술과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엌 일을 못하는 아내를 위해 정성과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주신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문 앞에 놓고 간 목장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인사를 못하였습니다. 큰 사랑의 빛을 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서로 돌보아 주고 살피주는 사랑의 공동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할 때에는 암세포가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퍼지고 무서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강건할 때에는 아무 일이 없지만 세상적인 유혹으로 빠지면 최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강건할 때에는 아무 일이 없지만 세상적인 유혹으로 빠지면 최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왕근 집사

예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뉴욕을 떠난 지 만 5년이 다되어 갑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주일 아침 예일교회에서 보냈던 행복했던 루틴이 그려집니다. I-495 Exit 62 Holtsville에 살던 저희는 주일날 아침 나름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웃음 가득한 인사를 받고, 주로 교회 식당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식사 당번인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밝은 얼굴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짧은 인사를 보내고 오른쪽 복도를 통해 예배실로 갑니다. 그 시간부터 하루 종일 기쁨과 행복의 행진입니다.

예일교회 주일예배는 잔잔히 흐르지만 끊임없는 시냇물과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개회송에서 들리는 힘찬 테너 목소리는 승전을 알리는 나팔소리 같습니다.





예일교회 장로님들의 기도에는 진실된 감사와 사랑이 보입니다. 월드클래스 반주로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묘약입니다. 성가대 찬양의 아멘과 함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기쁨을 느낍니다. 잔잔하고 겸손한 목사님의 굽은 목소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금상첨화입니다. 제 마음을 잘 열어 귀를 더욱 기울이게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번 새로운 다짐을 하며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소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목사님의 메세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목사님이 참 좋았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다들 약속한 듯 함박웃음으로 인사하는 성도님들 틈에 끼어 함께 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친교실, 식당, 사무실과 목사님 방을 지나 아내와 저는 교사로 섬기던 주일학교와 유치부실로 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일교회 복도는 충분히 좁아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아담한 시골 마을에 있는 꽃길과도 같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 복도를 오가며 많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제게는 특별했던 이 복도에서 많은 분들과 인사하고 악수하며 사랑과 격려를 나누고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우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 가족은 이사를 많이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위스콘신으로, 위스콘신에서 캘리포니아로, 지금은 아리조나 투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여러 이민교회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도 만났고 힘들고 피곤한 교회도 만났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잘되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들고 피곤한 교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름의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에는 전체 성도 수에 비례적으로 신앙의 멘토가 많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좋은 교회는 목자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요. 예수님처럼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가야 할 곳으로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랑할 점은 교회의 리더들이나 장로님들의 희생과 교회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마음을 잘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마을의 목자들도 목원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

척하시면서 기초를 잘 닦으셔서 예일교회의 기둥들이 잘 세워진 까닭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담임목사님도 훌륭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목자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실행되고 이어지는 좋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대대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일장로교회 여러분,

유치부에서 장년까지 각 기관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일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사를 다닐지 모르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예일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가지는 자

존심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 이 모범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일교회의 어린 세대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훌륭한 목자들로 자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처음과 같이.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교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목자의 역할을 잘하셔서 예일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잘 섬기시도록 기도 드립니다.

투산에서 이왕근 집사 드림.

(아쉽게도 제가 뉴욕을 떠날 때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모든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기쁜 날이 오겠지요. 건강하세요.)





예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다

정영선 집사

1. 만남 1

새로운 신앙생활,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다

만남...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만남에는 우연한 기회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예일교회와의 만남이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음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었다.

박사과정 공부하느라 테네시주에 6년여 동안 살아본 적은 있지만, 안식년을 보내는 교환교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이곳 롱아일랜드는 난생 처음 와보는 생면부지의 땅이었다. 처음에는 지리도 익숙지 않아서, 임시로 렌트한 자동차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리를 익히는 형편이라 스토니 브룩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며 정보를 쌓아가는 중이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후 다녀야 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교회에 대한 사전 정보도 좀 얻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예일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 홈페이지도 둘러봤다. 이곳에 도착한 후 당장 필요한 쌀과 밥솥을 사기 위해서 물어 물어 한양마트에



왔는데... 바로 그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고 계신 흥정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귀한 조우였다.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집에서 좀 멀지만 공간적 거리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정겨운 만남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목장 모임과 초기 정착 과정에서 성도님들의 친절한 안내...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다. '예수님 제 일'이라는 교회 표어,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수준높은 찬양대의 찬양, 찬양 예배를 여는 찬양단의 영감있는 찬송, 여러가지 교회 행사들... 처음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리둥절 했는데... 그 행사들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성도들과도 친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2. 만남 2

목사님의 힘있고 심령을 파고드는 설교

한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습관처럼 겨우 대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대 봉사하는 것에 급급했다. 그런데 예일교회에 몸담으면서 매주일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예배 때마다 심령을 촉촉히 적어 주는 영감있는 말씀을 대하게 될 때의 기쁨과 감격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설교시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목사님의 진지한 모습 외에, 유머가 넘치고 새가족 환영회 같은 모임에서는 살짝 무너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지극히 인간적이시고 정겨운 모습, 다소 파격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아내(이순은 집사)와 나중에 또 다른 새가족 환영회를 경험한 두 딸들(가영, 효영)도 같이 느낀 소감이다.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에 새가족들의 마음이 훨씬 빨리 열리는 것 같았다.

3. 만남 3

은혜 넘치는 찬양대와의 함께

새로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할까 말까? 짧은 1년간의 체류 기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짧은 기간이니만큼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기도 한데...

하지만 찬양에 대한 열망은 우리 부부를 찬양대에 지원하게 했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차 적응이 되며, 이젠 준거집단으로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대원들과 정도 많이 들었다.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찬양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처음엔 주눅 들기도 했지만, 30여년 찬양대 경력으로 배짱 좋게 시작하였는데... 모두들 잘 감싸주셔서 좋았고, 찬양대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지휘자님의 위트 넘치는 유머가 너무 좋았다. 음악적인 기교와 발성으로 수준높은 찬양을 추구하지만, '실력' 보다는 '영감'으로 드리는 찬양을 강조하는 믿음의 리더십이 무척 좋아 보였다.

4. 만남 4

목장 식구들, 그리고 다양한 교회 행사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한 달에 두 번, 각 가정마다 돌아가며 드리는 목장예배를 통해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 고민거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같이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기회가 되었다.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삶의 고단함과 시름을 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 정말 아름다운 만남들이다.

다양했던 교회 행사들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우회, 체육대회, 성경 퀴즈대회,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행사, 바자회 등등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비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찬양 연습까지 하다보면 어떤 주일날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돌아보면 좋은 추억들로 가득차 있다.

5. 또 하나의 만남을 기약하며

나에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은 어느새 그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이제 얼마 후면 난 이곳을 떠나게 된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게 마련이니 떠나기 싫어도 가야만 한다. 가만히 이곳에서의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일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 제일'의 신앙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옳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위대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예일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이다. 예일교회는 참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이고 교회 부흥을 위한 또 하나의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신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예일교회에 보내주시고 1년동안 한 가족으로서 잘 양육받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넘치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예일교회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린다.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주상우 집사



제가 교회를 만나간 지가 3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교회에 만나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은 소리였지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암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 때문에 동생에게 이런 큰 병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동생이 수술을 하던 날 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수술한 동생을 보며 저는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뉴욕 예일장로교회가 나의 마음에 들어왔습

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내 김 집사는 전에 다니던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신 바나바사역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분에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의 여동생은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직장에 다시 나가 일을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끔찍 힘들었던 담배도 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김 집사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아들 용석이와 딸 가희까지 이렇게 가족 모두가 예일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다시 불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 지킴이 레서피(Recipe)

성태섭 장로

“예수마을”에 기고하게 된 동기

저는 2008년 71세의 황혼의 나이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7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 딸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자 베이비시터를 두어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서울에서 살던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외손자들이 출생하자 아내는 딸의 산후 조리를 돕기 위해서, 베이비시터 공백이 생기면 외손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미국에 오게 되었고, 홀아비 신세가 된 저도 아내를 따라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건강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경남지역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앓다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할 정도가 되어서, 그때 서울에 가 계셨던 아버님이 저의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 오시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도 위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배



탈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런 연유로 젊어서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서적 중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책이 출시 되어서 눈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거의 빼놓지 않고 읽어 왔습니다.

저는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산과의 인연이 많아서 청년시절부터 “생활체육”으로 등산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한 생활체육으로 테니스도 약 20년 정도 쳤습니다. 태어나서 7살까지는 바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다와 친숙하게 되어서 수영도 그 누구에게도 배운 바 없어서 개품이었으나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역시 생활체육으로 골프도 쳤습니다. 마는 시간에 쫓기며 살다보니 골프가 몸에 익숙할 정도는 못 되었고 1997년 한

국에 붙어 닦친 IMF 이후는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생활체육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온 셈입니다. 그런 덕분에 저 나이 또래의 사람으로서는 비교적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황혼기가 되어서 미국에 왔지만 무언가 생업을 위해서 일거리를 찾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때에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와서 유학하던 아들이 콜롬비아 로스쿨을 막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생업을 이어갈 직장을 찾다보니 취업은 하였으나 수입이 시원치 않았고, 며느리도 파슨 대학원을 졸업하고 재학시절에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들의 수입을 합쳐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대학의 부부 기숙사에서 나와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했던 뉴저지 지역에 원룸을 얻어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 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손녀를 돌아볼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에 살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수입이 변변치 못했던 아들 부부는 베이비시터를 데릴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누나 집에서 두 외손자를 돌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와서 첫 출생한 신생아를 돌봐줬으면 했습니다. 아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제가 자원해서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오면 식사 수발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 드려야 하고, 원룸에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하나 밖에 없고, 흑을 때려다가 흑을 되붙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내심 탐탐치 않았겠지만, 저는 며느리가 산후 휴가를 끝마치고 첫 출근하는 전날 밤에 배낭에 생활용품을 챙겨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아들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땅, 기회의 땅,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첫 삶을 시작했던 이민세대는 그 누구나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뉴저지 팰리사이드 지역에서 맨하탄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통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들 부부도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먹지 못하고 집을 나서게 되고, 점심은 사먹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직장 일을 끝마치고 서둘러서 퇴근해도 빨라야 저녁 7시 30분, 어떤 때는 저녁 8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해 주는 식사를 먹을려니 저의 식사시간, 식사습관, 생체리듬에 너무 맞지 않아서,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제 식사는 저 스스로가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덕택으로 음식 만드는 기초실력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미국에 와서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일거리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었는데, 아들 집이 직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차피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시기는 지났으니 아들 내외는 생업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저는 가정주부처럼 가정을 지키고, 가족 구성원 서로가 “역할분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서글픈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이 먹으면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당한 기간 동안 내 몸에 <임상실험>을 하듯 체크하고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식 식단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아내가 있는 헌팅톤, 딸 집으로 갔다가 주말에 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뉴저지로 오가는 생활을 7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인 셈이지요.

제가 70을 넘긴 나이에 무슨 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체육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약천후가 아니면 매일 4km 이상 걷고, 주말에는 약 2시간 정도 등산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생강홍차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지가 약 2년 정도 됩니다. 요즘은 생강홍차가 하루라도 없으면 허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홍차를 식후에 숟가락 반컵 정도씩 먹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면 매일 같

생강홍차가 내 몸에 미친 영향

제가 생강홍차를 매일 2~3 차례, 한번에 약 반컵(약 100cc) 정도를 음복하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에 여러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① 맛이 좋아서 계속 먹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들, 맛이 없으면 누가 계속 먹고 싶겠습니까?

② 음식물 소화에 큰 도움이 되는 듯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려서부터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위장 탈이 자주 났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위장이 튼튼한 편이 못 되어서 음식조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명치가 항상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강홍차를 식후 숟가락 반컵 정도 먹으면 “채기”가 쑥 뚫리는 것 같이 시원해졌습니다.

③ 이노작용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줌발도 약해지기 마련

인데 오줌발이 젊은 사람처럼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저의 아내가 우연한 기회에 화장실 밖에서 저가 오줌 누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음성으로 “오줌발 소리”가 젊은 사람 같다고 해서 파안대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④ 배설(배변)작용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저는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살 때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몸에 적응해 보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었을 때는 아내와 함께 강화에 가서 몇 달 먹을 분량의 수삼을 사와서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우유 한 컵에 수삼 몇 쪽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매일 한 컵씩 먹었습니다. 배변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인삼성분의 좋은 영향으로 피로를 느끼는 일도 없었습니다.

수삼을 사러 가지 못 할 때는 아침식사로서 사과 한개와 고구마 한개를 먹어왔습니다. <고구마>는 배변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손녀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차례 <고구마>를 먹여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변비문제로 힘들어 하면 매일 고구마를 한차례 먹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는 맛도 좋거니와 영양가도 좋은 식품입니다. 변비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⑤ 손에 난 상처가 빨리 나았습니다.

저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 같은 장소에 몇년마다 물사마귀가 주기적으로 나곤 했습니다. 물사마귀가 나면 엄지 손가락이 무척 아파서 고통스러울 정도였

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물사마귀가 생길 때마다 바르고 붙였으나 나온 듯 하다가는 또 반복해서 생겼고, 요즘에는 약 3년 정도 잘 낫지도 않아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생강홍차를 먹고 몇 개월이 지나자 그토록 지긋지긋 했던 물사마귀가 90% 정도 없어지더니 이제는 아주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느낀 생강홍차의 효능은 이 정도로 끝내고 세세한 것들은 지면상 생략합니다.

저는 개발한 음식이 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시식을 권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안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는 분들에게도 시식(試食)을 권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예일교회에서 등산동호회 “섬김이” 역할을 2010년부터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편도 약 한 시간 정도 등산을 하고, 쉼터에서 약 20~30분 정도 쉬면서 친교시간을 갖고 하산하게 됩니다. 왕복 두시간 정도 등산하는 셈입니다.

뜻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주저 마시고 참여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꾸준히 하시면 감기몸살이나 잔병치레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등산 중 친교시간에는 각자가 조금씩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갖게 되는데, 이 때에 제가 개발한 “생강홍

차”를 큰 보온병에 담아가서 컵에 한컵씩 나눠 드렸더니, 등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모두가 너무 “맛이 좋다”고 만드는 방법, 즉, 레시피(Recipe:요리법)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빛을 갚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8월 22일 토요일 저녁에 새가족들이 교육을 필요하고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정현아 권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참여하는 분들이 각기 한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면 잔치가 풍성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각자가 성의껏 한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생강홍차”를 만들어 갔습니다.

식사시간이 파할 무렵에 입가심으로 “생강홍차”를 컵에 조금씩 나눠 드리게 되었는데, 모두가 맛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Recipe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준비해간 생강홍차 분량이 부족해서 드시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생강홍차 Recipe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수마을 읽어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제가 예수마을에 생강홍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 8월 초에 주보 <교회소식>란에 예수마을 원고를 제출을 권장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담임목

사님께서도 원고제출을 권장하시는 광고를 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마을 원고는 당해 연도 12월 말경에 마감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8월에 예수마을 원고를 제출해 달라는 광고가 있는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예배가 필한 후에 담당 장로님께 “8월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하고 여쭙봤더니 아직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참여를 권장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도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글 제목은 <생강홍차>가 아닌 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고 보니 제가 글을 쓸 수 없는 환경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의 역량마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덤석 약속을 하게 된 것을 스스로 자탄하게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두 손녀를 돌보면서 저의 세끼 식사와 두 손녀의 먹거리도 돌보면서 미룰 수 없는 설거지와 두 손녀 중, 큰 손녀는 여름캠프, 작은 손녀는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일 등으로 차분히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원고를 쓸 여건이 못 되어서 끄끙 앓게 되자 저의 아내가 <생강홍차> 레시피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제가 구상하고 있던 제목 보다는 <생강홍차> 만들기를 써서 성도들에게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이었으나 저가 생각했던 글의 제목을 쉬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고 마감 일자는 다가 오는데 원고는 단 한 페이지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마을에 원고를 제출하겠다고 찰떡 같이 약속을 해 놓고 몇 번을 연기하고 최종 제출 마감을 앞두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담당 장로님께 본의 아니게 신의 없는 사람으로 비쳐선 안 되겠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참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기간 동안 등산을 함께 하시던 장로님 내외분이 저희 부부가 미국에 와서 여행다운 여행을 못하고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을 감지하시고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몇 달 전에 <플로리다>로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 주셨습니다.

본래 여행 계획은 여행을 주선하신 장로님 내외분, 또 다른 장로님 내외분, 저희 내외, 세 가정 부부가 함께 가기로 했는데, 여행 날짜를 며칠 앞두고 한 분의 장로님께서 발병을 하시게 되셔서 두 가정 부부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키시미(Florida Kissimme) 마을 <리유니온 리조트(Reunion resort)>의 예약 숙소에 방한 개가 비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함께 못 오시게 된 장로님 부부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 되었으나, 빈 방을 저의 임시 서재로 쓸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아내와 한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원고를 쓴다고 부스럭거리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된, 아내인들 모처럼의 여행지에서 마음이 즐거울 수 없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에 대한 예수사랑이 이런 것인가!!!

너무 고마워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잠시나마 저를 위해서 마련된 것과 같은 임시 서재에서 다른 분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원고를 쓰면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장로님 내외분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감사, 또 감사!!!

로마서 8:28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도움의 손길이 임하심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의 일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감명 깊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리유니온 리조트(Reunion resort) 고급 숙소에서 여행을 하면서도 <예수마을>에 원고를 쓸 수 있었고, <예수마을>을 담당 장로님께도 신의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상낙원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마련된, 미국의 세 골프 황제들

이 설계한 꿈의 전당 같은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8홀씩, 일주일 동안에 7라운드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덮어 두었던 골프를, 잘 치고 못 치는 것을 떠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원도 한도 없이 실컷 치게 되어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일주일에 4라운드 이상은 무리라고 하였는데, 78세의 나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8홀씩, 일주일에 7라운드의 골프를 치고도 지치지 않은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생활체육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짬을 내서서 생활체육으로 매일 걷기 운동, 등산, 그 외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생활화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골프 실력이 신통찮은 수준인데도 7일동안 골프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장로님께서 골프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어서 저희 내외와는 골프를 같이 치실 수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저희 내외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하는 기쁨이 이런 것인가? 새삼 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리유니온 리조트(Reunion resort) 경내에는 18홀 골프장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곳에 숙소를

정하고 유숙하지(Stay) 않으면 골프를 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골퍼들에게는 꿈의 전당 같은 곳입니다.

몇달 전부터 여행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들 딸 집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옳다!!! 여행갈 때 PC(개인 컴퓨터)를 들고 가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마을> 담당 장로님께 약속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오면서 PC를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생각해 오던 제목을 쉬 포기하지 못해서 여행지에서도 이틀을 내심 끙끙 앓다시피 하며 씨름하던 중, 여행지에서 저의 아내가 준비해간 재료로 생강홍차를 끓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강홍차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여행을 주선해 주시고 함께 오신 장로님께서 예수마을 원고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원래 구상한 원고 제목은 여러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생강홍차 레시피(Recipe)>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생강홍차 만드는 방법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려서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백번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간 앓던 이가 쑥 빠진 것 같이 속이 후련해 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마감을 닦새 앞두고 여행지에서 원래 구상했던 제목을 일순간에 날려 버리고 “생강홍차”만들기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강홍차 만들기〉

1. 재료준비

① 생강 : 가급적 꺾고 싱싱한 것을 고릅니다. shopping center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홍차 : 홍차는 녹차를 발효한 것입니다. 영어로 “Black Tea” 라고도 하며, shopping center에 가시면 상표가 “Lipton”으로 표시된 것 외에, 몇 종류의 홍차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흑설탕 : 한아름, 한양 등, shopping center에 가시면 제일체당의 백설탕표 흑설탕 외에 몇 종류의 흑설탕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제품 흑설탕도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구입처를 쉽게 발견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④ 물 : 정수된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만들기

① 생강을 씻고 다듬기

생강을 깨끗이 씻고, “채칼”로 껍데기

를 벗기고 얇게 자릅니다. 냄비 등 적당한 용기로 생강의 양에 따라서 물을 적당히 붓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즉시 불을 LOW로 낮추고 생강성분이 우려나도록 약 한 시간 정도 낮은 불로 달입니다. 생강성분이 많이 우려났다고 판단 되시면 생강을 “채”로 건져 냅니다.

② 홍차 넣기

생강을 다린 뜨거운 물 한컵 분량(약 200CC)에 홍차 한 봉지를 띄웁니다. 1,000cc 분량이면 홍차 5봉지를 띄웁니다. 2,000cc 분량이면 홍차 10봉지를 띄우고, 뚜껑을 닫고 홍차성분이 많이 우려냈다고 판단되시면 홍차봉지를 “채”로 건져 냅니다. (☞ 홍차 봉지에는 뜨거운 물에 홍차를 띄우고, 건져내기 쉽게 “실”이 붙어 있습니다)

③ 흑설탕 넣기 (☞ “흰설탕”이나, “누런설탕”은 안 됩니다) 반드시 “흑설탕”을 가미 하셔야 합니다.

“생강성분”과 “홍차성분”을 우려낸 뜨거운 물에 “흑설탕”을 구미에 맞춰 적당량 넣습니다. 흑설탕 맛이 좀 진한 듯해야 “생강홍차”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 생강과 홍차를 다린 뜨거운 물에

“흑설탕”을 가미하시면 “생강홍차” 만 들기는 끝납니다.)

{☞ 생강홍차를 만드실 때, 한번에 며 칠분을 넉넉히 만드시면 일손을 많이 줄 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시고 싶으실 때에 적당한 온도로 데워서 기호에 따라 서 하루에 2~3번 정도 드시면 건강증진 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생강홍차의 효능

① 생강의 효능은 몸의 오장육부를 따 뜻하게 하고, 감기에 좋고, 피부를 윤택 하게 하고, 이노작용과 배설작용을 돕 고, 상처를 속히 아물게도 하고, 그 효능 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 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가정 비상약으로 쓰였을 정도로 귀 중한 약재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 도 귀중한 한약재로 쓰이면서 어떤 한약 을 다리든지, 생강이 들어가지 않는 한 약이 없을 정도로 귀중한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② 지금처럼 생강을 쉽게 구할 수 없 었던 시절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아니 면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보물 같 은 약재였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신하들 에게 하사하는 진귀한 하사품이기도 했 고, 각 나라 왕실 간에 보내지는 귀중한 진상품의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③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킨 것으로 녹 차가 찬 성질인 반면, 홍차는 따뜻한 성

질 입니다. 추운지역에 사는 유럽 사람 들은 찬 성질인 녹차를 즐겨 먹지 않고, 따뜻한 성질인 홍차를 즐겨 마신다고 합 니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킨 것이므 로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④ 흑설탕은 흰설탕에 비해 칼슘이 몇 배이상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많 이 들어 있어서 흰설탕의 역기능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강홍차를 드셨다 고 해서 흑설탕에 포함된 당분 때문에 치아(齒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일 은 없습니다. 더구나 흑설탕의 당분 때 문에 당뇨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흑설탕에 많이 들어 있는 칼슘과 미네랄의 영향으로 치 아나 당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홍차 한잔에 들어 있는 카페인 의 양은 커피 한잔의 카페인 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정도로 적은 양입니다. 생 강, 홍차, 흑설탕의 여러가지 유익한 성 분이 조합을 이룰 때, 건강에 유익한 약 리작용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에 몇 잔의 coffee를 드시면서 홍차에 들어 있는 적은 “카페인” 양 때문에 “생 강홍차”를 기피하신다면, 정말 “아이러 니컬(ironical)”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⑥ 당뇨는 영양과잉과 운동부족으로 각 음식물에 들어 있는 당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여서 일어나 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하는 병 임 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음식물에 대한 절제와 걷기운동을 생

활화 하고 그 외에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생활화하시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⑦ 저는 생강홍차를 음복하면서 흑설탕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해 보기 위해서 먹기 시작한 후 2달이 지난 시점부터 한달에 2~3회 자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홈 닥터에서 정기검증 때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이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세계에서 113세로 제일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일본인 노파께서 흑설탕을 제일 좋아하셨다는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① 요즘 제가 개발해서 먹고 있는 <건강쥬스>는, 맛이 너무 좋고,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배변이 너무 시원해졌고, 몸속 노폐물이 완전히 씻겨 나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건강쥬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고부터는 아들 집 냉장고에 가게에서 사온 여러가지 쥬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손녀에게 고구마를 먹이거나 토스트를 먹을 때는 건강 쥬스를 곁들여 먹이게 되는데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쥬스가 아니면 가게에서 사온 쥬스는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든 건강쥬스 명칭이 아들 집에서는 <할아버지 쥬스>로 불려집니다.

② 제가 또 한가지 개발해서 먹는 식품이 있는데 <발아현미 쥬스>입니다.

발아현미 쥬스는 발아현미 생쌀을 믹서기에 쥬스처럼 갈아서 아침식사 시에 먹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위를 편안하게 하고 배변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현미를 발아시키면 영양가와 그 효능이 약 700~1000% 높아지게 됩니다.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뇌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식품입니다.

③ <건강쥬스>와 <발아현미 쥬스>도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려서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렸으면 했으나 이번 기회는 지면과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부족한 긴 글을 읽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경암송대회



배경례 권사
(제2 여성교회)

내가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일교회가 기도, 말씀, 선교가 병행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등록하기 전 수년간 새벽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고 나 또한 그 그룹에 속해 자리잡아 왔다. 그리고 교회안에 들어와서는 성경읽기, 성경퀴즈, 성경암송대회 등의 행사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선교를 우리교회가 다방면으로 선교를 펼쳐 나가는 선교비전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적으로 나도 성경을 읽게 되었고 새벽예배에 오가며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다. 이 성경암송은 극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내게 큰 양식이 되리라 믿는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이숙 씨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 성경암송으로 박해를 이겨나간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바가 있다.

나도 실제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태풍 ‘샌디’로 13일간 전기가 끊어졌을 때 찬송과 성경암송으로 춥고 지루한 시간들을 만회한 적이 있다. 우리 교회의 이번 성경암송대회는 재미있고 감명이 깊었다.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다. 특히 하나 외우면 들었어버리는 나이에든 최선을 다하는 제2 남선교회! 본이 되어 보인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며 생각 외로 술술 외우고 맞추는 제3 남선교회! 또 마음에 들었다. 특히 잘하는 모습보다 틀리고 더듬거리는 모습이 더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제2 여성교회가 1등 사랑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등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많은 성도가 참여했고 또, 도전도 받았다. 수많은 성구들이 암송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성경암송대회를 갖는 우리 예일교회는 큰 영적 성장이 되어가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성경퀴즈대회



이윤미 권사

예일교회는 재미있고 즐겁고 은혜롭고 유익한 행사들이 일년 내내 있다. 거의 매월 계획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며 꾸준하게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한결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준다. 모든 행사에 선수로든 아니든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참맛을 알아가는데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지속적으로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더할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된다.

그 행사들을 보면 영적 강건으로는 성경 스피드게임, 성경암송대회, 찬송가의 워부르기, 성경퀴즈대회 그리고 감사찬양제로써 말씀과 찬양으로 훈련되고 겸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며 육체적 건강으로는 구정에 있는 옷놀이로부터 탁구대회와 전교인 야외체육대회를 갖음으로써 건강을 갖추게함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더 할 수 있음에 참 좋은 행사들이라 하겠다.

올 한 해도 위의 모든 행사들은 계획된 가운데 은혜롭게 행하여졌고 많은 성도들에게 각각 많은 열매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는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선수든 보는 자이든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깨

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다.

10월에 있는 성경퀴즈대회에 선수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선교회장님의 제안으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연약해진 건강이 변명이 될 수 없기에, 또 행사 끝에 있을 기쁨과 은혜의 맛을 알기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하는 기대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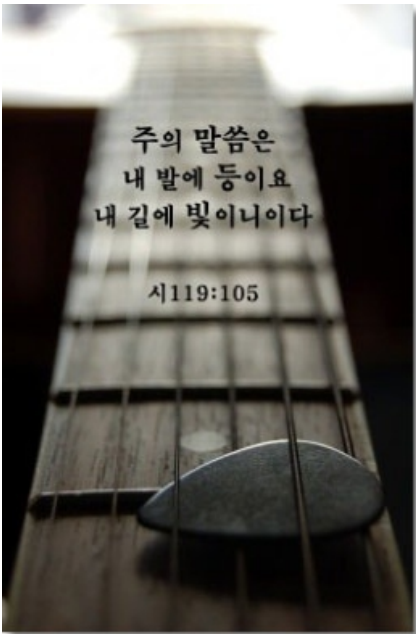
그런데 퀴즈 범위 분량이 나왔는데 너무나 많았다. 와--우, 나의 의지로는 감당하기에 벅차 보였다. 창세기,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이다. 이 세 편의 책을 어찌 한 달 안에 공부할 수 있을까? 이제는 받을 은혜는 어디로 날아가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부담과 무리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알팍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는 커녕 어찌하오리까 불평이 나오려 하는데 좋은 소식으로 범위가 반으로 조정이 되어 재발표가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여전히 세 편의 책에서 반으로 줄여짐으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

록 힘을 더하게 하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왜 은혜랴...

목사님의 설교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모든 예배시간에 부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창세기는 새벽기도에서 말씀해 주시며, 사도행전은 수요일예배에서 말씀강해 해주시고, 로마서는 벌써 주일 예배시간에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고 계셨다.

모든 예배 때에 주어지는 목사님의 말씀들은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듣는 시간이 왜 이리 짧게 느껴지고 끝나는 시간이 빨리 오는지 너무 안타까웠다. 나의 두 귀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기에 모자랄 정도였고 머리로는 빼곡히 정리하기에 부족하나 뜨거운 마음에는 가득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더하여는 목장예배 교제로 커피브레이크로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목사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액기스 같은 말씀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크신 뜻,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영원히 스올에서 살아야 할까봐, 할 수 없이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알게 되었다.

당대에 의인이었던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도 배웠고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르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할례를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시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기며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도바울의 말씀들을 로마서에서 공부할 때 육신의 할례를 받은 백성과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살아나신 분만 믿으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한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영광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함도 배

왔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실상을 주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충만함을 선물로 받을수 있게 하시는 것도 재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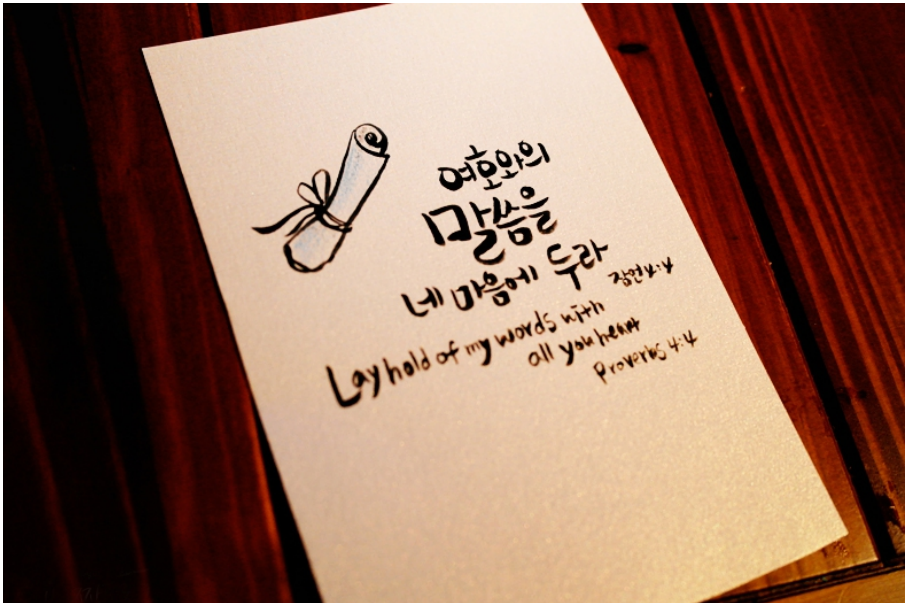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도 스테반 집사의 전도와 순교하게 되는 모습에 더욱 더 알게 되었다. 회심을 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봤으며 이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써 유대인, 헬라인이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사도바울이었다.

창세기, 로마서, 사도행전. 이 세 편의 책은 서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공부함이 얼마나 유익한 지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성경퀴즈대회였었다.

이번 퀴즈범위를 공부하는 중에 얻은 확실한 은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복음을 우리는 못 영혼들에게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도 이 모든 행사들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와 신앙생활을 잘 다듬어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임호준 형제

고린도전서 15장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뉘에 없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에 있는 성경구절과 찬송은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그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한 해

였기에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27일(미국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 담임목사님께서 저의 귀국을 모든 성도님들 앞에 알리셨고 그 광고를 들으시고 저를 아시는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상당히 아쉬워 하셨고 제 모든 형편을 아셨던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셨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 제가 다시 교회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던지 얼굴이 화끈거렸던 일도 기억합니다. 사실 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대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몸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미국 예일장로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다시 이 땅에 남게 해주셨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온 후 지난 2년 동안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하루 하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놀림에 늘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다



세상 가운데 잘 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면
저는 어디를 가도 소망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없는 저에게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고
남들이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 자유를 얻고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자 대한민국으로 떠나는 길 밖에 없었습
니다. 그런 선택과 동시에 찾아오는 갈
등은 예일장로교회가 또 다시 맘에 걸리
기 시작했지만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
리며 대한민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고
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수영 장로님과 신
경호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를 이곳에 다
시 남게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좋은 집
과 직장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건지 하
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보다는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일
해서 장로님께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 처음 일할 때에는 장로님을 생각
하며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는데 생소
한 직업에 말도 안되고 실수도 많고 적
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니

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
게 됩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되어서 직
장생활이 익숙해지고 편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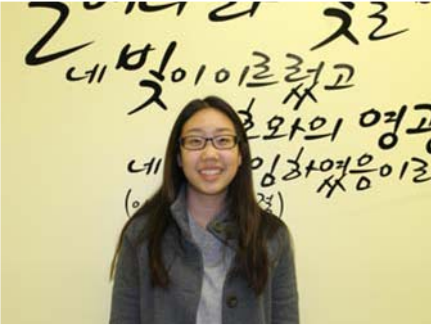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잘 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런 세상이라면 저는 어디를 가도 소망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
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없는 저에게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고 남들이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어
디서부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2절: 그
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라

-아멘-

Summer Retreat 2015 Testimony

Jennifer Lee



Ever since I was younger I had trouble trusting anyone, I always thought that if I told someone something it would make myself vulnerable or I would be judged so I would bottle everything up to myself. I never told my pastor, my closest friends, and definitely not the people in my church. Before the beginning of this year I didn't open up to people in my church because I thought that they couldn't be trusted, I only saw them once a week so I didn't know them and they didn't know me. However, during past Jeff's sermon he spoke of how important accountability is, and that was then I realized that I had to open up and break the barrier that had kept me from my grade and even from my church for so long. This new understanding made me further realize that I didn't love they out

h groupers enough and that I had ignored the younger kids and ignored the quiet kids who didn't say much at church.

Despite Jesus telling us to love the out casts and the unloveable and to not neglect the children, for their hearts are pure and untouched by sin, I had done both of the sethings without my self even knowing. When I realized this I felt so broken so I went over and reconciled with almost every person of the youth group, apologizing for ignoring them or not loving the mas I should have.

That night was the night when I fell to my knees and felt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my heart, when I surrendered completely to Christ it was an effable joy that I had never felt before.

I was crying and laughing but at the same time my body was cold and electrified, it was an extra ordinary and super natural feeling. I would always hear in my pastor's sermon about how the joy that you will experience once you give the burden you carry to God will be unexplainable and you will be over joyed, but when I finally felt the joy that the pastor was always talking about I felt so blessed. Over the past years I was a fake Christian thinking that I was a real Christian because I was in the shallow end of the ocean but I realize that I'm called to beareal Christian even when I am brought to the deeper end of the sea.

마더 와이즈 수업을 마치고.....

강서윤



30년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육아 책 몇 권과 친정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모습만으로 외국 땅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아이를 기르는 생활은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에 올인하면서 겪었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책 하고는 다른 현실 속에서 또 결혼과 더불어 완전히 달라진 제 생활과 함께 많은 마음의 부담과 책임감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겨 든든한 면과 제 노력에 비해 아이들이 잘 자라준 부분들도 있었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기대치가 높은 저로써는 힘든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건강히 잘 키우면 되었었지만 자라면서 바른 가치관과 좋은 성격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공부도 잘 해야, 예체능도 잘 해야, 키도 커야 한다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제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없어지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더 완벽하게 제가 아이들을 100퍼센트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거로 너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택한 일에 대한 보상심리 같은 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일 교회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제 삶이 많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100퍼센트 내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아이로 자라게 하면 하나님이 잘 키워 주실 거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은 마음도 생겨 제 부담의 portion이 줄어든 면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나 아

이들에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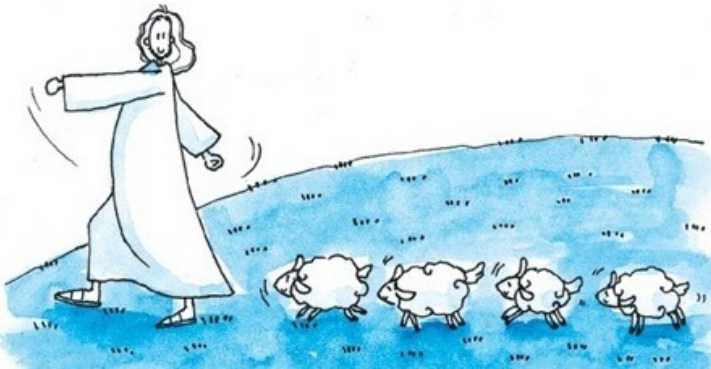
그리고 마더 와이즈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풍부하신 경험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수업을 이끌어주셔서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신 성도님들이 또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움 말씀도 많이 주셔서 살아있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받는 동안 매주 배운 말씀을 실천해 보고 제 자신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성숙하고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주가 아쉽게도 훌쩍 지나서 이제부터는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공부한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다른 어머니들도 다음에 꼭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더 와이즈 (Mother Wise)를 마치면서



마성애 집사

먼저 10주 동안 마더 와이즈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더 와이즈를 통해서 양육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남편과 나의 관계, 아이들과 나의 관계, 세상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채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더 와이즈를 하면서도 오랜 시간 나의 욕심과 내 생각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쉽게 버려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전 항상 독재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선 더 더욱 그랬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지로 감정에 치우쳐서 나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 결정이 반복되면서 혼란을 겪었을 아이들과 남편을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마더 와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바탕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걸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훈육에 대한 두려움, 소통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또 다시 느꼈습니다. 그 시간이 기도와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큰 아이를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의 기도라는 걸 마더 와이즈를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놓아지지 않는 나의 욕심이 조금씩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단단한 집을 세우고 그 안에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와 아내가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더 와이즈를 하는 10주 동안에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더 와이즈 마치며

김정현 집사

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다. 사소한 것에도 이유를 달며 말대꾸 하는 애를 보며 나는 더욱 흥분해서 야단치고 하다보면 온 식구들은 공포속에 휩싸였다. 남편은 왜 이렇게 애한테 모질게 말하느냐고 하면 버릇없이 반항하는 행동은 고쳐줘야 한다며 남편의 입을 막았다.

그러나 고치고 말겠다고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고 나면 아이의 행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반항하고, 내 말이라면 좋게 말하는 것도 진저리치며 거부하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것이지? 하는 답답한 마음에 마더 와이즈를 공부한다는 광고에 그 해답을 찾고 싶어 바로 신청을 했다.

첫 수업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혹은 전혀 다른 고민을 가진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과 여러 사례 중에 그렇



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었다. 그렇게 이 모임을 사모하며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 내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를 자녀를 훈육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질책이었고 결과에 대한 벌을 주는 형식이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꼬집어 훈계하던 나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미래에 아이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바라는 소망도 없이 내 말을 거역하는 아이에 대한 분노만 있었다. 칭찬할 것이 있어도 아이가 자만할까봐 말을 아끼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다보니 아이와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다.

한 과 한 과 배워가면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음을 느낀다. 어렵게 칭찬을 해줘도 아이는 이미 틀어진 마음 때문에 삐딱하게 받아들인다. 울컥 다시 잔소리가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그 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반성하며 더 칭찬해주고 다정한 말로 이 아이를 치유해줘야지 하고 다짐한다.

두번째로 느낀 점은 내가 아이를 전혀 성경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았다는 반성이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이들도 유년

주일학교, Youth Group 등에 밀어 넣으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나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했

다.

그래서 책에서 배운 대로 식탁기도부터 시작해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가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나부터 현명한 아내, 엄마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예일 마더와이즈

Yale Mother Wise

제1기: 지혜로운 어머니 (Wisdom for Mothers)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은 큼니다.

여기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기 위한 모임이 시작됩니다.

예일 마더와이즈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며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과 자녀 양육의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언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기간: 2월 25일 - 4월 29일 (10주)

교재: 마더와이즈 - 지혜 (Wisdom for Mothers)

인도자: 조유경 사모

Wisdom for Mothers

Maureen Park

When my husband and I married after college, I believe I knew who I was and what my role as an individual and wife would be. After graduate school and by age 30, we had a daughter and a son.

The earlier child-rearing years were physically tiring, but manageable, juggling work and parenting.

We attended Catholic mass every Sunday as a family, dutifully prayed before every meal and bedtimes and we tried to live as morally-conscious citizens,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and making responsible choices. But something was amiss and Subum and I both knew it. Raising our children became more challenging and we didn't feel we had it all under control. As in the hymn based on Matthew 6:33,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fter the toddler years, I had found mothering to be more challenging and many times the thought entered my mind that I should have continued working full time; that perhaps my children and I were spending "too



much" time together which must be the problem of why they hated me and likewise, why I hated the confrontations that I didn't feel equipped to handle. I wanted to be the fun and consistently joyous mother, who made my children happy and comfortable. But this conflicted with my need to prepare my kids for a good future and I expected them to do their absolute best. Asking the question,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in a happy voice didn't work. They have x-ray vision into our true intentions and telling them to turn off the TV helped even less.

In "Wisdom for Mothers" I was liberated to find that I could draw wisdom from the Bible and apply that knowledge to my daily life. I was enlightened when I learned that I am not operating under my own power, but to a greater power. That I could yield my problems to God and ask Him to provide a solution was truly a huge burden lifted from me and as far as I

could see, from my children as well. That by seeking out God, I was building my house upon a rock as stated in Matthew 7:24-25,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Whereas it relates to my relationship with my children, I have been sharing my weekly lessons with my children as time permits. On discipline especially, the other day after my son graciously submitted to a “love spank”(3 swats to the bum post quick prayer) after hitting his younger sister, he came to me and said, “I love you mommy.” What a miracle; I’ve been chasing him for months and with God’s help I caught him. And our moods remained light, without any hard feelings. These are the kinds of moments I would like to duplicate, to have my children respect me, for us to have and maintain a trusting.

On my relationship with my husband, which I cherish, I found the lesson on my role as a wife a real eye-opener. I never imagined that the role of a wife could be so impactful on a marriage and family as a whole. This is in part due to cultural and modern influences, from women’s rights, to our own individual agendas, why should we have to carter to our husbands? Because the wisdom in these words is clear in 1Peter 3:1, “Wives, in the same way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s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Mother Wise has brought focus to my role as an individual, mother, wife and citizen. From my relationship with God, to my relationship with my husband and children, I have valued this Mother Wise class very much and look forward to finishing the workbook, re-reading the workbook and notes taken, applying them, and a min spired to read the Bible on a more continual basis to gain more applicable wisdom.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를 하고 나서



김은희 집사



나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도와 의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맞이하며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져 가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듣는 목사님의 설교로는 영적 갈등을 느꼈다. 그리하여 밖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 모임에 가려고 찾던 중이었다. 마침 창세기 커피 브레이크를 한다 하여 등록하였다. 윤목사님과 8명, 아주 적당한 인원 이었고 윤목사님의 기도응답이기도 하였다.

커피 브레이크는 귀납법적 성경공부 식이라는 여는 글을 읽고 흥미를 갖게 되었다. 책자를 읽으니 모임의 기본규칙 이었고 기도문을 읽고서 정성들여 만든 책임을 알게 되었다. 좋은 시간을 허락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임에 갔다.

창세기 발견1의 성경공부는 창세기 성경말씀 속으로 들어가니 그때의 환경, 상황,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

획과 사랑을 알아가며 다시 지금 나의 환경, 상황, 삶 속에서 적용하여 서로 나누고 그 생각의 다양함으로 우리의 눈이 다방면으로 깨달아지고 열리는 경험을 하였다. 모인 분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은 분이 계셔서 여러 의견을 듣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윤목사님께서서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러 생각들을 가지 치기 하며 성경말씀을 기준으로 빠르게 세워 주셨다. 윤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워 갔다.

특히 우리는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였는데, “선악과 따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살자”, “우리 모두가 뉴욕의 의로운 노아로 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주를 짓고 사는 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있는 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성경공부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도 은혜로웠고, 풍성한 간식과 부요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하였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빨리 대하기 위하여 방학을 뒤로하고 8월초에 모이자고 건의 하였다.

선과 악이라고 비판과 정죄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4여선교회장을 맡으며...



손지현 집사

3월 29일 대망의 4여선교 헌신예배.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은 이 모습
이대로 4여선교를 섬기겠습니다.

회장을 맡고 첫 월례회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물어보고 인터넷에 들
어가 리서치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라는 걱정으로 설교집, 큐티북을
구하기 위해 책방이란 책방을 다뒤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리서치하고~~ 휴~~
그렇게 시작한 4여선교의 회장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가는 나의 부족함 첫
걸음마의 발자욱이었기에 너무나도 조
심스럽게 내디뎌야 했습니다. 헌신예배
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기에 은혜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내 마
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온통 적
셔냈습니다. 은혜의 찬양을 드리며 눈을
감고 지난 4여개월의 시간을 정리해 보
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나에게 나를 사
랑하사 주님이 주신 회장이라는 직분..
지금까지 4개월의 시간들이 영화관에
필름돌아가듯이 천천히 돌며, 지금은 성
령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
염없이 감사에 감사만이 더한 시간들입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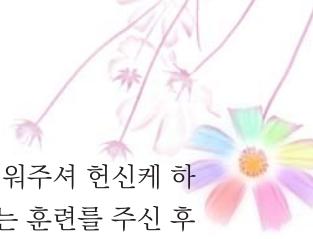
어느덧 2014년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친교실로

들어가니 월례회 날이었고 저번 달부터
회장선거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린 그
냥 광정희 권사님을 밀어붙이기로 마음
먹었기에 별 걱정없이 앉아 '광정희'만
외쳐대고 있는 순간 갑자기 손지현 이
름이 나오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뉴스
에서나 보던 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라~ 못한다~ 정말 못한다~ 그럼
어떻하냐~ 누가 하냐~ 그래도 나는 못
한다” 국회의원들끼리 뒤엉켜아수라장
이 되었있는 국회 마냥 분위기는 이상
하게 흘러갔고 몸부림끝에 분위기가 진
정된 듯 싶었을 땐 내가 회장이 되어있
었습니다.

선교회에서 두번의 임원도 해보고,
바자회 준비를 위해 여러번 봉사도 했
었지만 감히 내가 회장을 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아왔
던 회장의 자리는 선교회의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아왔기에 엄청난 부담감이 다가왔습
니다.

더욱이 2014 여선교회장을 맡았던
광정희 권사님이 헌신한 4여선교회
가, 굳굳이 잘 잡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쉽
게, 감히 회장자리를 받아드리기 힘들



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하겠다고 나에게 밀어부치고 떠난 빈자리에서 공허한 마음으로 광정희 권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나에게 다 가르쳐 주셔야한다고... 권사님이 부회장 자리를 지키며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회장을 하겠다고 결정했고 그 순간부터 실갱이 하느라 몸도 지쳐 있었고 머리속에 많은 생각으로 마음도 지쳐있을 때, 마주치는 분들의 인사가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축하해요 ~ 고생 몽땅하세요” “ㅋㅋㅋ 회장되셨다면서요.. 은혜 엄청 받으실겁니다” “선교 회장 하실려면 성가대 내려놓으셔야 할텐데요.. 회원들 모임 때 밥도 챙겨드려야 하고 뒷치닥거리하셔야 하니~” “축하해요 ~ ㅎㅎ”

격려보다는 야유처럼 들렸던 인사말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들렸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년 동안 목장에서 목원들 잘 챙겼다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더 크게 쓰시려고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라는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하며, 근본적으로 나를 하나님 눈에 띄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 목원님들이라 생각하니, 우리 목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며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남편 손정

민 집사를 목자로 세워주셔서 헌신케 하시고, 목원들을 섬기는 훈련을 주신 후에 더 큰 섬김을 배우라고 나에게 내려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신 사명에 발을 내디딘 4여선교의 울타리 안에서, 나 스스로 기쁨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 첫번째로는 내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려면 목사님의 설교를 정성들여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수요일 배를 빠지지 않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두번째로는 내가 보고 느끼며 섬겨왔던 선교회 안의 일들을 정리해서 내가 맡은 기간동안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회장이든 임원이든 기쁨과 순종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니 나의 마음에 또 하나의 희망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되어 하나되는 우리 4여선교”가 되자고 처음 월례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선교회일을 할 때 든든한 뿌리가 필요함을 알기에 임원님들과 부장님들이 함께 모여 친교도 하고 일년동안의 행사도 계획하고 이 뜻 있는 시간이 출발점이 되어 지금의 저에게는 9개의 팔다리가 (임원님들과 부장님들) 생기고 내가 섬겨야할 회원분들이 30여분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축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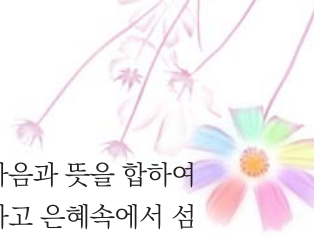
임원님들과 부장님들의 미팅에서 우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큰 것을 알지만, 2014년 4여선교회장을 지내신 광정의 권사님께, 감사패를 만들어 공로를 서로 나누고 싶어 임원들과 상의한 결과 모두들 좋다고 하셨지만, 주위에서 그리고 다른 선교회에서 유난을 떠나는 소리가 날까 염려했어야 하고, 내가 받고 싶으니 미리 준비 한다는 소리도 있을까 걱정도 하고, 교회 자체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패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음이라 생각하고 통과 되었지만, 결정은 목사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다른 선교회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금은 섭섭 했지만 기도 하는 중에, 그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덕이 되야 하고 누구보다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내가 목사님이 찬성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던 중 윤승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쩌다가 윤목사님께 감사패 얘기를 하게 되었더니 담임목사님께 여쭙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윤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사님, 목사님께서 4선교회 재량에 맡기신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어주신다는 것이..... 직분의 책임감으로서가 아니라 4여선교의 엄마가 된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임원님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도와주시는 몇분의 집사님들은 우리 4여선교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행사가 있어 미팅을 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서로 눈치보며 미루지않고 회장인 제가 힘들까봐 먼저 걱정해주시며 서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어떤 행사든 준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즐겁기만 합니다. 웃고 떠들고 기쁘게 열심으로 일하는 4여선교를 우리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실 것이라는 기쁨에 축복도 배로 주시리라 믿으며 이것도 우리는 다 나눠 가질 것입니다.

4여선교 회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섬김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고 몸이 힘든 만큼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헌신하는 여러 집사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느끼며 오늘 하루도 준비해야 할 행사를 위해 올 집사님들과 하하 호호 카톡합니다. “헌신예배 때 하얀 셔츠에 할 스카프 만들려고 천 사러 나왔는데~~ ㅎㅎㅎ, 그 색깔이 이쁘겠송...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히니 운전조심하고 빨리 들어가송~~ 스카프 다 만들었엉.. 예구 힘들어~~ 수고했엉



복 많이 받으실꺼여~ㅎㅎㅎ, 우리가 찬양할 곡 그룹카톡에 올렸으니 앉으나 서나 일할 때나 부엌에서나 차 안에서 항상 듣고 주일날 점심식사 후 피아노 앞으로 연습하게 모여주세요~~, 널싱홈 방문 때 가져갈 호박죽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일들 보셔용~~, 고마워용~~, 성경 퀴즈 선물중 전원 참가자 선물을 내가 가서 사올꺼여~~, 내가 코스코 카드 있으니 거기서 필요한 건 내가 사겠음~~, 깎두기 담으려고 무 10박스 차에 다 못실겠는디~~ 몇명이 가서 차에 나눠신고 오지뿐~~ 새벽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먼저 무 깎고 썰고 시작하고 있을테니 아침에 불일들 보고 오셔요~~”

이렇게 우리의 그룹카톡 대화는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우리 4여선교를 잘 섬기라는 것이기에, 모이는 우리는 준비하고 일하면서도 즐겁기만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데 주님 또한 저희들을 보시며 많이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행사가 있었던 4여개월~~ 저에게는 각 선교회가 먼저 중심이 되어 사랑과 합심으로 선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주님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소명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인 가족입니다. 각 선교회는 주님의 집에서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방안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은혜속에서 섬긴다면 우리집 ‘예일교회’는 내가 제일 이 아닌 예수님이 제일인 집으로 평화와 성령충만함이 넘쳐나는 복을, 우리 예일교회 모든 가족들이같이 나눠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항상 같이하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예일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씀 붙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4여선교안에서 헌신해주시는 집사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이 메마르지 않게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잘 한다고 칭찬해 주며 힘들어 할 때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남편 손정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속에,

“우리 4여선교 화이팅!!!”

“우리 예일교회 화이팅!!!”

오후 5시에 온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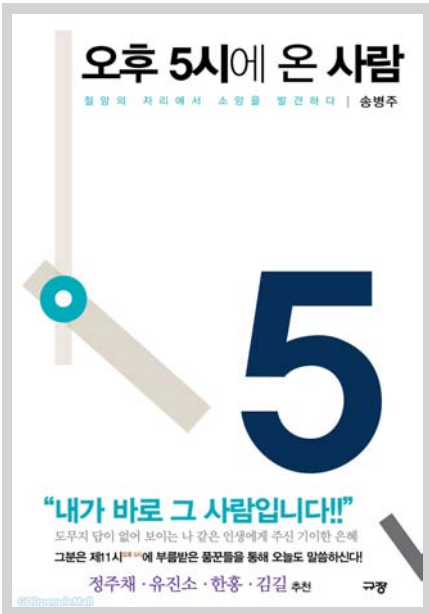
저 자 : 송병주

출판사 : 규장, Aug 4, 2014, 240 pages

소 재 : 뉴욕예일장로교회 도서관



도부용 집사



20장 1절에서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한다. 오후 5시의 인력 시장에서 날 저물고 더 이상 불러줄 곳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대안이 없어 그저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서 있는 이 시대 슬한 인생들이 그 품꾼들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수개월 전부터 ‘히스패닉 일용직 봉사 사역’에 참여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의 품꾼과 같은 심정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수많은 히스패닉계 일용직 노무자들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을 그때 우리는 비록 불러들일 수 있는 포도원은 없지만, 정성들여서 빵, 커피 그리고 라면으로나마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은 것이다.

고난과 환난, 그리고 고생 가운데 암으로 소천하신 아버님. 남기고 간 엄청난 빛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던 중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님. 유학 중에 늦둥이로 얻은 막내 아들의 자폐증이 발견되어 경험한 마음의 고통들.

제목과 보고 단번에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느낌이 왔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십일시 (오후 5시)에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집주인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으나, 비가 오는 중에 우산을 가져다 주지 않던 하나님에게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비를 맞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저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저자는 잘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과 비슷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한 고통과 풍랑을 헤쳐나온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가슴을 두들기는 공감을 받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고통이 자신의 지난 경험과 겹치치면서 눈물을 펄펄 쏟아내는 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심정을 누구 못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의 이야기처럼 이 책의 내용은 나의 가슴을 더욱 더 두들기며 아프게 했다. 저자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공명되어 가슴과 머리를 헤집고 지나갔다.

이 책에서는 4부 12장으로 나누어서 각 장에서 성경의 인물의 예화를 통해서 또는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풍랑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절망과 낙심하는 그 때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인생 역

전을 하라고 역설한다.

1장, 7장 그리고 8장에서는 앞서 잠시 소개하였던 절망했던 가족의 이야기와 주위 사람들의 사연과 함께 원망과 좌절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 감격할 것을 볼 수 있다.

각 장에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즉,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 (2장),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3장), 미문 앞 앓은뱅이 (4장), 가진 채색옷이 찢긴 요셉 (5장), 미친 척하는 다윗 (6장), 이세벨의 음모로 아합왕에게 포도원을 빼앗기는 다봇 (9장),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진 유다 (10장), 사명을 버린 도망자 엘리야 (11장)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속였던 야곱 (12장),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순간의 심경(心境)이 어떠했을까 묵상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지 새롭게 각인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마지막 장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배우는 교훈은, 지금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찾고 찾는 주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고,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원망스러울 만큼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에 대한 저자의 표현은 에필로그에 잘 나와 있다. 여기서 저자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데, 하나님의 시간 관리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묵상하다 알게된 것은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오시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잘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자기와 함께 해주셨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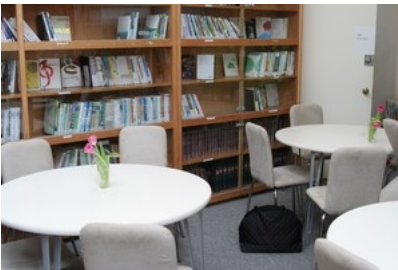
또한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오후 5시에만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잘 나갈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뒷전이 되었다. 그

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오후 5시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오후 5시에야 비로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오후 5시에 우산도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비를 맞기를 저자는 원한다. 함께 손잡고 춤을 추고,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좋다고 한다. 그런 열병에 걸리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다.

예일도서관 Library



예일도서관은 예일교회 본당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답게 짜여진 서고와 sky light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듭니다.

서고에는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종교서적과 자녀교육 건강 리더십 그리고 시와 수필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기 월간지 빛과소금이 있습니다. 예일의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도서관에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매주 증가하고 있고 또한 희망도서관의 구입도 가능한 우리의 감사한 도서관을 적극 추천하며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감사편지



1목장

김주상 권사

1마을 목사님과 총무님께 드립니다.

옛그제 같이 목사, 총무님께 감사의 글월을 드렸는데 벌써 또 한 해가 흘러 펜을 들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고 우리는 그 물결 따라

성경가방을 들고 왔다 갔지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스며드는 가랑비를 맞으면서 싹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일을 생활전선에서 헤매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힘겨워 기진맥진할 즈음, 주일은 돌아오고 무거운 발길로 성경 끼고 교회에 들어서면 그때 우리는 그 단비를 깨닫습니다. 목원들의 안부를 물으며 친교를 나누며...

목자님과 총무님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한 자매 형제의 사랑을 깨달으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분들의 보살핌이 편안히 돌아가는 수레바퀴 맞물리듯 하니 우리는 애늬

은이가 된 듯 따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목원들의 안부를 챙기고, 아픈 분들을 심방하며 이끌어 주시는 목사, 총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된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고 평화롭고 건강한 새해가 되소서.

제1마을 김주상 드립니다.



2마을

강문구 집사

한 해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감동입니다. 2014년 올 한 해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었는데도 편안하고 안정된 여유가 있었음은 좋은 교회와 만남으로 마을로 목장으로 연결되어져 좋은 기운이 전해진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흰 머리결을 흔드시며 엇박자로 어깨를 흔들며 손뼉을 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냥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절로 은혜가 됩니다.

친근함이 묻어나는 마을지기 유학준 장로님! 언제나 모범을 보이시는 멋진 모습을 늘 사랑합니다.

2마을은 풋풋함과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젊은 사랑, 잘 익은 중간 사랑, 깊은 맛이 우러나는 사랑의 권사님, 장로님들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 조금은 어색할 것 같았던 분위기를 완전 반전시키며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일구어낸 섬김의 마을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주신 권사님들, 기쁨으로 목장 교통정리를 잘해주신 신영필 집사님, 장소제공에 언제나 에스맨이었던 박용훈 집사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늘 감동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권사님 장로님들, 마음씨도 얼굴만큼 예쁜 집사님들, 덕분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눈가엔 몇 개의 주름까지 늘어났답니다.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곡이었지만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습에 임하였고 마지막 리허설에 동참하신 오장로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맛난 짜장요리와 다음 목장예배 때 꼭 참석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녁에 일하시는 관계로 참석 못하셨는데..)

그리고 약속도 지켜 주셨습니다. ‘나

왔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11월 목장예배를 빛내주신 오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선교회로 가시는 세 분의 장로님 권사님, 서로 안아주며 아쉬움을 나누기도 했지요.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한 올 한 해 목장과 마을은 사랑을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많은 사랑을 받기만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 열심히 기도로 섬겨주신 유학준 장로님과 신영필 목자님께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



4마을 10목장

강서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세례도 받고 101제자훈련 과정을 교육받고 예일교회는 어느덧 제게 또 하나의 집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든든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형제들처럼 그런 사랑을 주시고 영적인 가르침과 이끌어

주시는 곳, 편안하고 자꾸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회 자매들이 가끔 우스갯
소리로 말합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다닌지 몇 년 된 것 같다고... 아는 집사
님들이 참 많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장 분야야', '우리 마을 분야야'
라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연령대
나 사역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
로 다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
지만 목장과 마을이라는 또 하나의 모
임은 연령을 떠나 사역부서를 떠나 더
폭넓게 성도간에 교제하고 서로 돕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목장예배, 마을예배에 참석하면서 많
은 분들께 은혜받고 사랑받고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분들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
하게도 정말 좋으신 마을지기와 목자를
만나서 지난 한 해가 더욱 따뜻하고 은
혜로웠습니다.

항상 완벽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이끌
어 주시고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며 뵈
는 것 만으로도 저를 가다듬게 만드시
는 김준택 장로님, 위엄은 있으시지만
다가가기에 어렵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그 곁을 지
키시며 온화한 미소와 소녀 같은 감성
을 가지시고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김미라 권사님, 앞으로
남편을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남편 챙
기라고 일 도우러 나오는 것도 조금 자
제하라고 하실 만큼 속 깊고 배려 깊은
분이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
사한지요. 가슴 뭉클했습니다.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를 내뿜으시며
항상 친절하신 손정민 목사님, 새신자
졸업 때, 101수로 때, 세례받을 때 항상
꽃다발 챙겨주시고 우연히 사석에서 만
난 저희 남편에게 친근하게 해주시며
부담스럽지 않게 전도해 주시는 스펀스 님
치는 손정민 목사님, 밝은 얼굴로 힘드
신 내색 하나 없이 저희 목장 모임을 목
자님 댁에서 식사도 다 손수 준비하시고
때론 어머니같이 때론 언니같이 잘 챙겨
주시고 작은 것 하나도 신경써주시는 얼
굴처럼 마음도 예쁘신 멧쟁이 손지현 집
사님, 이렇게 멋진 분들과 또 사랑이 많
으신 마을 목원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마
을, 목장이었습니다.

내년에 같은 마을이나 목장에서 못 뵈
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존경을 담
아 앞으로도 자주 뵈 수 있게 되기를 소
망해 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
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크신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 또 다
른 장로님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5마을 12목장

장연희 집사

5마을 12목장
목원 장연희집사
입니다.

예일교회에 이
름을 올리고 처음
으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목장예배
에 참석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하
나님의 사랑이 들
볶 느껴졌던 떨리
고 설레었던 그 첫

날을 회상하여 목자 오성섭 집사님과 오
연숙 집사님 총무 김동준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과 함께 했던 한해를 되돌아 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조금씩은 서로를 알고 눈인사만 했던
목원과의 만남은 서먹했지만 목자, 총무
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었고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달했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피곤함으로 지쳐있
을 때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돌
리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수
고 많으셨습니다.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
해 우리를 돌보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
마을지기 송장로님 방권사님 너무 감사
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보살핌이 있
었기에 저희 5마을이 서로 화합하며 하
나 되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 총무 위로의 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맘껏 받

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서 기뻛고 행복했고 감사했습
니다.

또 다른 첫 사랑을 기억 저편에 보내
어 내년에도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리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



6마을

한기하 장로님,
구속자 권사님!

한해 동안 우리
6마을을 위해서 기
도해 주시고 수고
해 주셔서 정말 감
사드립니다.

늘 저희 목원들
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준
비해 주시고 넉넉

한 마음으로 나눠 주시고 저희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
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모습
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권사님의 신선초 나물 무침은 정말 예
술입니다.

강성식 집사님은 저희 목자로 한 해
섬기시면서 목장 예배 때 전해 주시는
말씀과 서로 나누는 기도로 많은 위로

가 되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의 캐릭터를 만들어 생활하면서 생각나게 하여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니 저희 목원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목장예배 때 설명해 주셨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정말 좋았습니다.

김상진 집사님은 총무님으로 섬기시면서 저희 목원들을 정말 잘 챙기시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좋은 본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가정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 같은 집사님들과 같은 목장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격려하며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위로 받고 위로하는 일들도 있는 한 해였지만 장로님과 권사님 목사 총무집사님들과 또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위로받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장면 집에서 처음 드린 마을예배 때는 같은 교인이어도 서먹하고 낯설었는데 마지막 마을예배 때는 다들 반갑게 서로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 얘기하면서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올 한 해 참 좋은 사람들과 지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압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목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지금처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일교회의 본이 되시는 가정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마을 17목장

작년 이맘 때쯤 새롭게 편성되는 목장으로 인해 설레이던 때가 바로 잊고 계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7,18,19목장이 모여 7마을을 이루고 매번 모일 때마다 맛난 음식들로 모임의 활력을 넣어주신 권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마을지기로 섬겨주신 우리 지재홍 장로님, 때론 어렵게 여겨지는 자리이지만 옆집 아저씨처럼 꾸밈없이 다정하게 대해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제

목을 나누며 일일이 챙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식사 당번일 때마다 제일 먼저 앞치마를 매시고 설거지며 바닥청소까지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수 년간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통하여 복음전파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을 받들어 7마을 안방마님으로 계시는 이연희 권사님께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늘 7마을과 각 목장 가정들을 위해 강력한 파워기도로 증보해 주실 뿐 아니라,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의 첫 음을 정확히 잡아주셔서 찬양 속에서의 권사님 모습을 더욱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7목장의 호프 김동환 집사님과 이정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희 가정이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게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본 예배만 드리던 저희 가정을 선교회에서 만나 아이들 만남을 핑계로 목장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고 식당 봉사, 목장 찬양제까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셨기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만들어 주신 각 가정의 '기도제목 모음판'을 성경책에 끼워놓고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

고자한 집사님의 세심한 배려였고 덕분에 서로의 기도 응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난히 남자집사님들이 적은 7마을에서 '아미고'를 자처하며 자질구레한 일까지 서슴치 않고 나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 또한 저희들이 보고 배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의 연락을 담당하며 드러나지 않게 이모저모를 챙기셨던 김정현 총무 집사님, 집사님과 늘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애쓴 수고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했던 목장 찬양제와, 함께 나누었던 기도제목들. 때론 언치처럼 조언하며 위로해 준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모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주님이 쏟아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마을 27목장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10마을 27목장에 정주현 집사입니다.

우선 지난 일년을 저희 10마을 27목장을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려 애쓰신 마

을지기 김현수 장로님, 이포영 권사님, 한수연 목사님, 그리고 박제진 총무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많고 여러 사정으로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목원들이 많은 저희 목장과 마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김현수 장로님을

마을지기로 만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살피주신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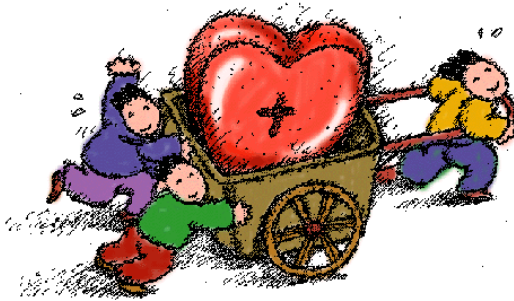
목장 모임을 통해 늘 장소를 오픈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을 보며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섬김에 대해 큰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부모님 같이 푸근하시고 몸에 섬김이 배어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본받아 저희도 열심히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의 아름다움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강문구 집사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사랑
나지막이 이른비로 세상 적시네
님과 함께 보낸 세월 풍성한 열매
감사하니 늦은 비로 축복주시고
사랑의 단비로 온 세상 열렸네.



금상

조유경 사모

하염없이 흐르는 은혜속에서
나를 위한 구주의 보혈을 보네
님께 드릴 우리의 헌신을 모아
감사찬송 주님께 올려 드리세
사랑 용서 넘치는 추수 감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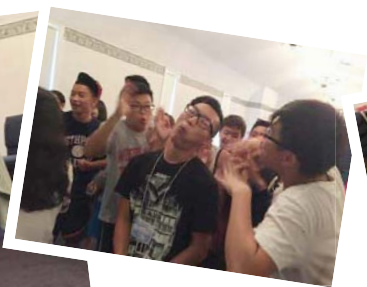
유치부
활동 소개



유년부
활동 소개



중고등부
활동 소개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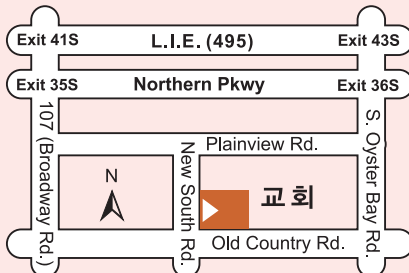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 부 예 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 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 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 배	오후 1:00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후 8:30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월 삭 기 도 회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청 년 부	금요일 오후 8:00	청년부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토요일모임 오후 2: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예수님
제일미션
교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담임목사 김종훈

Rev. Jong Hoon Kim, Pastor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교회 516-938-0383 • Fax. 516-938-3824 • 목사관 516-921-6012

www.yalechurch.org